

충청대거리에

Chungnam Cultural Magazine
2022 | No. 26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표지사진 백제문화제 (최근태)

충남 공주시내에서 벌어졌던 백제문화제 야간행사 장면

최근태 작가

- 대한민국사진대전(국전) 추천작가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지회 부지회장
- 공주대평생교육원, 공주문화원 사진반출강(2009~현재)

충남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2022 | No. 26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문

전 문

충남도민 문화권리 선언은 도민의 문화 향유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남 도민은 문화의 주인이자 권리의 주체이며, 문화를 누리는 동시에 창조해 내는 존재입니다. 이에 도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 선언을 합니다.

본 문

제1조(문화향유접근권) 충남도민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문화체육 시설과 공간,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조(문화예술교육권) 충남도민은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고 '삶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제3조(문화표현자유권) 충남도민은 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아가 창작 활동의 기쁨과 보람을 누려야 합니다.

제4조(문화다양성 보장) 도민과 충청남도 지역, 연령, 성,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러한 문화가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5조(충남의 문화자원 보전과 활용) 도민과 충청남도는 문화시설, 전통문화유산, 문화행사와 축제 등 문화 및 관광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충남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6조(충남의 문화공동체 지원) 도민은 문화 창작과 향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고, 충청남도는 이와 같은 문화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제7조(충남의 문화역량 신장) 충청남도는 문화체육시설 확충, 문화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충남의 문화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제8조(문화 협치)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충남의 문화권 실현을 위해 협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문화 협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9조(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에의 참여) 도민은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도는 도민의 주체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합니다.

제10조(평가와 의견수렴)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문화정책 수립과 실천,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며 도민의 평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1조(문화권 신장을 위한 의무)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도민은 문화 활동의 주체이자 주인이 되어야 하며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문화를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자신의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제12조(문화격차 해소) ‘함께하는 문화’ 실현을 위해서 충청남도도와 도민은 서로의 표현과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과 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13조(문화재정 확보) 충청남도도는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이의 신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구체적 실현을 위해 문화재정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민과 충청남도도는 충남도민 문화권 선언이 도민의 삶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충남도민 문화권리를 선언합니다.

2020. 10. 29.

도민대표단 일동

Contents

Chungnam Cultural Magazine
2022 | No. 26

06 테마기획: 역사문화

아름다운 사제의 정 - 강경 팔괘정
바다가 주는 선물 보따리 '어살'

14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8 특집코너: 충남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새로운 시작

22 충남의 새싹예술가

나는야! 꿈 부자 홍라엘!
박수 소리가 행복한 배우, 이승훈
비단고을 금산에 뜬 '노래하는 태양'
-버스킹으로 꿈을 그리는 금산고 3학년 신태양 인터뷰-
"그림 그릴 때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 새싹예술가 신가은

30 충남의 전문예술가

보령의 예술인 서양화가 임용빈
"붓으로 길을 내다" 서예가 효계(曉溪) 박성호
서천의 문화예술인 김대기

No.26 충남문화

발행일 2022년 6월

발행인 유환동

편집위원 황의호 보령문화원, 권선옥 논산문화원, 정찬국 부여문화원,
김형기 온양문화원, 박은희 서천문화원, 정지수 태안문화원

기획 조남민

행정 박형곤, 조민영

발행처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충남내포혁신플랫폼 210호
TEL 041)635-9102-3 FAX 041)635-9104

디자인 대한인쇄사

※ 본 책자는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36 문화원 이야기

제15회 충남·세종 향토사 대회
 역사 향기 그윽한 '성주가야길'을 걷다
 <공주문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다
 보령문화원, 제2회 만세보령 학술세미나 열어
 제10회 4.4 아산독립만세운동 추모제
 가족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예절교실
 문화사랑방
 2022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인생을 잇다, 짚풀을 엮다
 금산문화원 송파문화원 MOU 체결
 멈췄던 발걸음을 내딛다
 『명사 유홍준과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서천 단오제
 청양문화원 2022년 지역학(충남학·청양학) 개강
 예산시네마 5주년 이벤트 "3000만큼 사랑해"
 홍성문화원, 성년의 날 맞아 전통의 맥을 잇다
 우리들의 동요축제 '태안군어린이동요대회'

66 생활문화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아크릴 생활아트'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늘 한결같은 하모니 '에버그린하모니'

공주의 신진작가들의 모임 '00 아티스트'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가 젊은 예술가들을 만났을 때, '00아티스트'
 보령시 음악 동아리 더머드앙상블
 새로운 공연무대의 꿈을 펼쳐라!
 춤추는 실버
 나아내풍물단의 우리가락
 쪽빛하늘 천연염색공예 동아리
 민화, 평생의 벗을 삼다. 청심회

84 문화원연합회 상반기 소식

2022년 충남문화원 주요 추진사업 실무회의
 2022년 충남문화원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

85 지방문화원 상반기 소식

제10대 정종호 온양문화원장 선임
 '청심민화연구회' & 'The그리다' 동아리 연합전시회
 소소하지만 행복한 전시 '소행진'
 제11·12대 당진문화원장 이·취임식
 제18대 서천문화원장 취임식
 최덕휴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팔과정



아름다운 사제의 정

- 강경 팔괘정

권선옥 논산문화원장

강경은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라고 말한다. 강경은 한때 전국 3대 시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곳이다. 단종 2년(1454)에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에도 강경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이로 보아 강경은 600년이 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강경은 총독부령 103호(1930. 12. 30)에 의하여 1931년 4월에 대전, 천안, 공주, 조치원과 함께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때에 충주, 청주, 전주, 광주, 경주, 상주 등도 읍으로 승격이 되었으니 일찍이 도시가 형성되어 번영하였던 곳임을 알 수 있다. 한일병탄 이전에도 일본인들이 강경에 많이 거주하여 1899년에 강경일본인회가 설립되었다. 1902년에는 도내 최초로 우편수취소가 설립되었고, 1907년에는 강경 시내 전화가 개통되었으며, 한호농공은행 강경지점이 문을 열었다. 1917년경에 일본인과 일부 친일 세력을 위한 상수도 시설이 운영되었다. 이로 보아 강경이 얼마나 번성했던 곳인가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시대에 건축된 많은 시설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전하고 있다.

강경은 비단 일제 이후에만 번영했던 것이 아니다. 일찍이 강경은 유학도 흥성하였던 곳이다. 1626년에 황산서원(현 죽림서원)을 창건하여 율곡 이이, 우계 성혼 선생을 향배하다가 사계 김장생을 추배하였다. 1665년에 죽림서원으로 편액을 하사받아 사액(賜額) 서원이 되었다. 후에 정암 조광조, 퇴계 이황, 우암 송시열 선생을 추배하였는데, 이 여섯 분은 성균관 문묘에 배향된 분들이라 육현서원이라 불리기도 한다.

사계 김장생 선생은 1626년에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황산에 황산정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쳤다. 황산정 건립 연도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다. 사계의 스승인 구봉 송익필이 <차김희원황산정운(次金希元黃山亭韻)>이라는 시를 지었으므로 구봉 선생 생전에 건립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후에 정자 이름을 오늘날의 명칭인 임리정(臨履亭)으로 변경하였다. 임리정이란 명칭은 시경의 ‘전전궁궁 여림심연 여리박빙(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두려워하기를 깊은 연못에 임한 것같이 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같이 하라)’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현재 전하는 임리정의 현판은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씨이다.

우암 선생은 어려서 사계 선생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 또 사계 선생의 아드님인 신독재 김집(金集) 선생에게서도 학문을 익혔다. 1633년(인조 11년)에 장원급제하여 경릉참봉이 되고, 이어 봉림대군의 스승이 되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임금을 모시고 남한산성에 들어갔으나 조정은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봉림대군은 소현세자와 함께 볼모가 되어 심양으로 떠났다. 이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을 닦았다. 후에 효종이 즉위하자 이조



임리정



몽괘벽



청초안



판서에 올랐으며, 현종 즉위 후에는 좌참판, 1668년에는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되었다. 우암 선생은 사계 선생 사후에 스승의 체취를 기리고자 임리정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팔괘정을 짓는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크기와 모양이 임리정을 빼닮았다.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이 오죽이나 간절했으면 스승이 머물던 곳 가까이에 모양 또한 흡사하게 정자를 세웠을까.

나는 강경에 갈 때마다 팔괘정을 찾아간다. 정자에 오르면 우암 선생의 친필로 바위에 새긴 '청초안(靑草岸)', '몽괘벽(夢掛壁)'이라는 글씨를 오랫동안 바라본다. 글씨는 쓴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리고 정자의 정면 뒷마루에 앉는다. 멀리 금강이 유유히 흐르고 바람은 언제나 소슬하다. 내가 팔괘정을 찾는 것은 우암 선생의 스승을 흠모하는 마음을 되새기고자 하는 까닭이다. 존경받는 스승도 스승이려니와 그 제자의 마음 또한 나를 숙연케 한다. 스승도 훌륭했고, 제자도 훌륭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남을 가르치는 일로 살아왔는데, 그 누가 나를 스승으로 흠모하거나 할까. 아무래도 자신이 없다. 제자에게 참스승이 되지 못하고, 그저 월급쟁이에 불과하였던 나를 깊이 반성한다. 그리고 또 이어서 생각한다. 나는 마음속 깊이 스승을 흠모하고 있다. 그 역시 고개를 가로짓는다. 그것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다. 다만 내가 학문에 절실함이 부족했고, 그래서 스승을 따르지 아니한 때문이다. 팔괘정에서 여러 상념에 빠졌다가 터덜터덜 내려오는 나의 발걸음은 언제나 휘청댄다.

우암 선생의 정신은 뒤에까지 살아 있어서 1913년에 그곳에 여선교사 엘리스 샤프(Alice H. sharp, 사에리사)가 그곳에 세운 만동여학교를 세워 여성들을 교육하였다. 또 먼 훗날 강경에서 <스승의 날>이 발원(發源)한 것도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바다가 주는 선물 보따리 ‘어살’

정지수 태안문화원 편집위원

‘일본 해안선의 총길이는 약8,000해리며 그 수산액은 무릇 1억 원을 웃돈다. 한국 해안선의 총길이는 약6,000해리지만 수산액은 6~7백만 원에 불과하다.’ 1908년에 만들어진 『한국수산지 1』의 발간 유래에서 시작되는 첫 문장이다. 이는 한국의 어로 기술의 낙후성과 풍족한 수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채취하고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어법이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조급하지 않고 낭만적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전통 어업인 ‘어살(漁箭)·어량(魚梁)’은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잡는 방식이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현대의 어로 행위와 거리가 멀었다.

또한, 냉장이나 가공시설이 없었기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수산물을 잡을 필요도 없고, 때로는 귀한 수산물을 많이 생산하다 보면 관청과 나라에 진상하는 품목과 수량이 늘어나서 오히려 백성들의 고초가 가중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충청지방 해안선은 매우 복잡하고 다난했다. 간척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지금의 해안선보다 몇 배나 길고 복잡했으며 해안선에 접



| | | | | | |
|---|---|---|---|---|--|
| 1 | | | | | |
| 2 | 3 | 4 | 5 | 6 | |

1-3. 노루미독살
4-6. 굴혈독살

한 바다는 수심이 낮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장소에 따라 바닷물이 내만 깊숙이 밀려 들어오고 멀리 까지 물러나기에 조수가 바뀌어도 물이 잔잔한 곳이 있는가 하면 빠른 물살에 오리 다리도 부러진다는 여율도 많다.

해안가의 간석지는 평평하게 펼쳐진 모래와 갯벌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바다로 깊숙이 뻗어 내린 산 뿌리 끝에는 바위 절벽과 수중 여(磯)가 켜켜이 가라앉아 물고기의 다양한 은신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어패류가 서식하고 산란할 수 있는 기름진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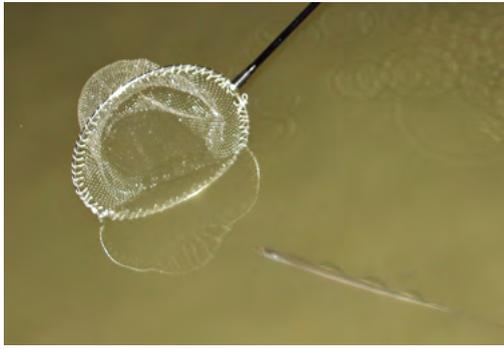
이러한 자연환경과 물고기의 습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어살'이다. 지구가 회전하고 달(月)이 차고 기울어 짐에 따라 하루 두 번씩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이 반복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근현대까지 이 어업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살법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잡고자 하는 어종과 바다의 물길과 방향에 따라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따라 그 생산성과 명성이 달라진다. 한번 설치되면 그 주인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그

자리를 소유하는 형태로 인정되고 좋은 어살은 농토와도 바꾸지 않을 정도였으며 때로는 사고파는 재산의 개념도 있었다. 어살을 설치하는 것을 '살을 맨다'라고 하는데 좋은 자리에 살을 매면 으레 그곳은 '누구네 살 바탕'으로 명명되어 암묵적으로 위치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기도 했다.

전통 '어살'은 대표적으로 '살'과 '독살'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태안지역에서는 독살을 그냥 '살'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살'은 현재 남해안의 지족해협에서 멸치잡이에 이용되는 '죽방렴'과 비슷한 형태의 구조물을 바다에 설치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살'은 '독살'보다는 좀 더 깊고 바닥이 평평하면서도 물살이 빠르게 이동하거나 조수의 차이가 큰 곳에 설치된다. '살'을 맨 때는 소나무나 참나무 말목을 이용해서 기둥을 박아 세우고 대나무 살과 싸리나무 등을 촘촘히 덧대어 새끼줄이나 칩닝쿨로 고정해서 물살이 흐르는 방향으로 대형 화살표 모양을 만든다.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물고기는 화살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중심부인 '입통(물고기가 모이는 뺑)'으로 모인다. 썰물에 물이 최대한 나갔을



| | |
|---|---|
| 1 | 2 |
| 3 | 4 |

1. 독살안 갈치잡이
2. 독살안에 들어온 갈치
3. 독살안 멸치잡이
4. 독살안의 멸치

때 어살의 중심부로 '살걸루(작은배)'를 타고 들어가 '채개(임통 입구)'에 배를 고정하고 '징이(그물)'로 임통 안을 빙 둘러서 물 고기를 건져 낸다.

살은 양력 3월 이전에 설치해서 실치를 먼저 잡고 실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조기(목은 조기)와 큰 갈치를 잡는다. 간혹 삼치와 민어가 몇 마리씩 들어올 때도 있었다고 한다. 실치잡이가 끝나면 멸치와 조기가 들어 오고 여름이 다가올 때 새끼줄을 보수하고 작은 크기의 갈치(수숫잎 갈치)를 잡는다. 가을 문턱엔 큰 갈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추조기(가을조기)와 민어가 잡히고 겨울은 새끼줄이 파도와 바람에 상해 버리기 때문에 휴업기에 들어선다.

'독살'은 '돌을 쌓아 만든 그물'이라는 뜻으로 충청도 지방에서는 돌(石)을 '독', 'дук', '돌' 등으로 불렀기 때문에 '독살', 'дук살' 등으로 불렸다. 독살은 모래 해변이 발달 되어 있는 곳에서 바위 군락이 만나는 가장자리에 경사가 다소 급한 지점에 주로 설치된다. 바윗돌은 육지를 바라보며 활모양으로 감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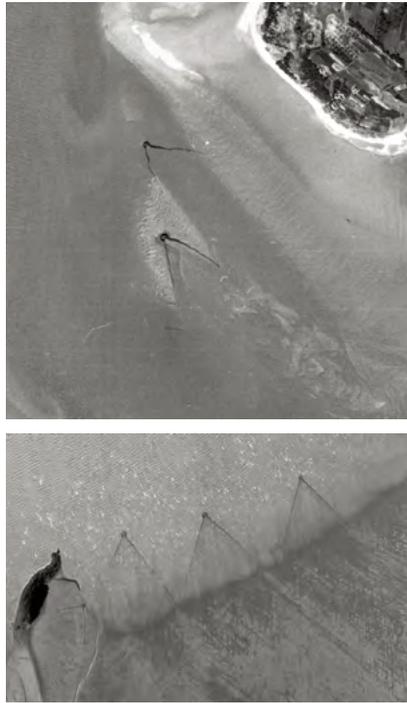
안으며 쌓아서 밀물 때 먹이활동을 위해 연안으로 올라온 물 고기가 썰물에 갇히는 방식으로 『한국수산지』에는 '석방렴(石防簾)'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반 '살'에 비해 독살은 내구성이 강해서 사계절 운영이 가능한데 주로 조기류, 전어, 멸치, 갈치, 갑오징어, 농어, 우럭, 돔, 삼치, 꽃게 등이 잡히고 예전에는 간혹 대형가오리가 들어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어살' 어법은 바다가 주는 만큼 욕심 없이 수확하고 기다리는 여유가 있기에 매우 낭만적인 어업으로 생각되지만 '어살'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힘든 노동이 필요하다. 설치 자체도 큰일이지만 바람과 파도에 의해 무너진 돌담을 수시로 보수하고 바다에서 '살'의 기둥인 말 목을 박고 수리하는 일도 어려운 작업환경이라 여러 사람이 함께 '어살'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계를 조직하기도 한다. 작은 독살의 경우에는 한 번 설치하면 관리와 수확을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경우에는 4~5인 정도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

$\frac{1}{2}$ | 3

1. 신두리에 설치된 죽방렴
(1967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2. 이원방조제 인근에 설치된 '뒬벌살'
1967년 항공사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3. 의항리 개목 독살군
1967년 항공사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다. 죽 어살은 어촌지역의 두레와 품앗이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운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고기가 많이 들면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생선을 나누면서 마을을 대동단결(大同團結)시키는 공동체 자산이기도 했다.

현재 간척사업으로 육지가 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인근은 태안에서도 대표적인 어살 군락지였다.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지만 '복기살', '질개살', '윗살', '목개살', '징미살' 등 지금도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어살이 많았다. 지역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한 개의 '살'에서 조기를 2동(2,000마리)을 잡은 적도 있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생선을 함께 날랐다고 한다. 지역에서는 '많아서 넘쳐났다'는 표현을 '징미났다'라고 하는데 그 어살은 항상 물고기가 많이 들어오는 좋은 살이라 하여 '징미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현재 충남 해안의 '독살'과 '살'은 연안 어족자원의 고갈과 현대식 그물의 등장으로 1970~80년대 거의 자취를 감추었

다. 나무 말뚝과 짚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던 '살'은 현재 흔적조차 없지만 '독살'의 경우에는 무너진 돌담이 서해안 곳곳에 남아 있다. 최근 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독살이 복원되기는 하지만 어업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육지에서 매년 곡식을 내어주는 기름진 논과 밭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으면 황폐해지기 마련이지만 바다는 사람이 간섭하지 않으면 기름지고 풍부한 어족자원이 복원된다. 최근에 새로 복원한 독살에서 흔치 않게 멸치와 갈치가 들어와 마을이 술렁였던 적이 있다. 태안 청포대 해수욕장의 '노루미 독살'은 여름 해수욕 시즌이 지나고 해변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진 늦가을에 멸치 떼와 갈치 떼가 들어와 마을 사람들이 깜짝 호사를 누린 것이다. 그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바다를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며 간섭하지 않는다면 복원된 독살에 달과 바다가 주는 귀한 선물이 가득 한 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홍제연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공주시 연수원길 103). (우→좌 방향. 본관 연구동 수장고 3개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주제의 충남을 만나볼 수 있다.

충청도는 '양반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양반으로 상징되는 오랜 문화는 이른바 '묘 치레'하는 사람들로 표현된다. 경상도는 '집 치레', 전라도는 '음식 치레'란 말이 있는데, 각 지역 사람들이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조상의 무덤부터 살핀다는 것은 나의 뿌리와 대대로 전승되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인식은 현대에도 여전히 이어져 온다.

충청남도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인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고증하고 연구하며 정책적 활용과 대중화를 추구하는 연구기관이다. 전국의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은 없다. 충청남도가 유일한데다 기관의 역할과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지역으로부터 오랫동안 주목받아왔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지자체는 관련 사업을 기획하거나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구원의 존재 자체가 놀랍게 여겨진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2004년 4월에 개원하여 올해 18주년을 맞이하였다. 연구원의 시작은 1996년 충남발전연구원(현 충남연구원) 내 하나의 부서였지만 관련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부설 연구소로 확대된 후 당시 심대평 도지사의 공약 사항으로 부상하며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연구원의 업무는 이름 그대로 충남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조사, 고증,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의 정체성이

담긴 원형 콘텐츠를 축적하고 도와 시군의 문화 정책적 기반을 만든다. 최근에는 대중화와 활용 분야에도 주목하여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매장문화재 조사와 발굴
-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의 조사, 기록화, 심화 연구
- 지역사의 고증과 연구, 편찬
- 문화유산의 정비와 복원, 보존 정책 수립, 관외 반출 문화유산 환수
- 동산문화유산의 조사, 수집, 전시, 수장 관리
- 충남 문화권(백제문화, 내포문화, 유교문화 등) 연구
- 충남역사박물관의 운영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매장문화재 발굴이 연구원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점차 문화유산 전반과 지역사 관련 연구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권별 정체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의 관광과 콘텐츠 활용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4년 개원과 함께 충청남도에 관한 연구 성과를 총망라하여 종합한 『충청남도지(忠淸南道誌)』 25권과 『백제문화사대계(百濟文化史大系)』 15권을 편찬하며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렸다. 이 책자는 학계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후 논산(05) 서천(09, 22) 금산(11) 태안(12) 홍성(16) 아산(16) 청양(18) 공주(21) 등 8개 시군의



수장고에 관리중인 청양 모덕사 소장 고전적. 자료의 해제와 보존처리가 진행된다.



문화재 발굴 현장



백제 금동관모(공주 수촌리 출토), 백제초기 지방세력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물



충청남도역사박물관(공주시 중동 소재)

시지와 군지 편찬을 주관하였으며, 내포문화총서 12권, 충남여성문화사, 금강문화 총서 등 한 가지 주제를 깊이 파고든 우리 지역의 문화사 총서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였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의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에 관한 총체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그 결과 우리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가 조선 후기부터 면면히 이어져온 충청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예산 서천 부여 서산 천안 등의 시군과 함께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약 1350여명의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였다. 지금까지 후손이 관련 기록을 찾지 못한 경우 서훈에서 배제되었던 것인데, 연구원에서 일제강점기의 문서를 발굴해냄으로써 큰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제 충남 출신의 독립운동가 숫자는 경북에 이어 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충청남도에는 1108건의 지정문화재와 그보다 몇 배 많은 수의 비지정 유산이 존재한다. 연구원에서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조사를 수행하고 보존 관리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2019년에는 도 지정문화재 전반에 대한 원형 기록화, DB 구축,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었다. 같은 해에 공주시에서는 제2금강교 건설이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로 지역 개발에 대한 국제적 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강에 다리를 건설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 세계유산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던 교량 신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WHC(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사안이다.

연구원은 주요 문화유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고고학적 발굴을 수행하고 있다. 발굴 과정은 문화재보호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문화재 주변 학술발굴과 지역 개발

이 이루어지기 전의 구제발굴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180여 건의 대규모 발굴 중 특히 내포의 도청 부지, 세종시 청사 부지 등은 공공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수행했던 사업이었다.

공주 수촌리와 서산 부장리에서 찾은 백제 초기 금동관은 당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였던 중요한 문화재로, 수촌리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추가 발굴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땅 위의 문화재에 대해서도 발굴을 통해 더 많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해미읍성, 홍주읍성, 서천읍성, 안흥진성 등 성곽은 오랜 역사적 거점 지역을 상징한다. 이곳의 발굴과 정비를 통해 한국사의 중요한 부분을 밝혀내고 지역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기여하였다.

연구원의 한 축을 이루는 충남역사박물관은 우리 도 내에 흩어져있는 동산문화재를 찾아 기증 기탁을 유도하여 관리하고, 충남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한다. 또한 도민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 및 축제,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공주시 중동의 빛나무 고목에 둘러싸인 고풍스러운 모습의 박물관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다.

한편, 충청남도는 1990년대부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문화권 개발에 관심을 갖고 충남 서부지역인 내포문화권과 충청권 전체를 포괄하는 충청유교문화권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원에서는 문화권 내의 각 시군이 가진 정체성, 문화자원을 조사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이 구상되고 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2022년에 개원하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이다. 새로운 기관과 조직에서 충청의 유교문화가 크게 꽃피우게 되기를 기대한다.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연구 성과는 홈페이지(<https://www.cihc.or.kr>)의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정근산 이공 대표

충남문화원은 1954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68년째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이다.

하지만 오래된 역사만큼 온라인에서의 역할은 정적으로 머무르고 있다.

코로나 시대는 비대면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실험을 하게 만들었으며,

통칭 MZ(밀레니얼 세대MillennialGeneration 와 Z세대 Z Generation) 세대와 실버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얻고 있다.

우리는 이에 발맞춰 이 시대가 원하는 문화 예술의 정보를 새롭게 디자인해야만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개편되는 홈페이지에서는 그동안 문화원이 해왔던 생활 밀착형 문화뿐만 아니라 문화원의 가치와

문화 예술의 전통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3가지 분류를 정하고,

충남문화원의 68년의 방대한 역사의 콘텐츠들을

담아내고자 했다.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문화 분류

첫 번째! 전통문화이다. 이는 그동안 해왔던 문화 계승과 문화의 재조명, 문화의 기록 등 전통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과거의 자료의 보관 작업까지는 홈페이지 개편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다. 과거의 방대한 양의 기록들은 온라인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생활문화이다. 이는 생활 밀착형 문화를 위해 문화원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20여 개의 강좌를 개설해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연중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이를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세 번째! 새싹문화이다. 이는 연령에 상관없이 문화 예술 분야를 꿈꾸며 처음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포함된다. 특히 아

동들의 첫 예술 활동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첫 데뷔 공간을 문화원에서 제공한다. 이것은 문화원이 문화의 중심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충남전문 문화예술 웹진 "쉼" 창간

다음은 충남문화원의 문화 예술 역할의 확대를 위한 전문 문화 예술 웹진의 발행이다. 이전에 웹진은 있었으나 웹진의 형태를 띠고 있지 못한 구성 방식에서 홈페이지를 개편으로 전체적으로 재구성하기로 하였다. 여러가지 기획안 중 첫 번째로 디자인의 방향성을 문화 예술 웹진에 맞춘 새로운(실험적인) 구성을 도입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웹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충남전문 문화예술 웹진 "쉼"은 앞으로 년 2회에서 분기별 1회씩 년 4회 발간하려고 한다.

홈페이지 개편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문화의 수용과 서비스를 위한 충남문화원연합회의 신규 콘텐츠의 도입은, 곧 문화원의 이용자인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요소이다. 기존 홈페이지 15개 콘텐츠에서 개편 후 160% 늘어난 24개로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다.

개편한 홈페이지는 3가지 문화 분류를 적용하여, 정적이며 행정적인 홈페이지에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홈페이지로 개편하게 되었다. 또한 충남 문화예술인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들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 및 법인 기업은 원하는 지방 문화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도입

충남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개편에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는 예술관, 문화 공유, 웹진 섬, 등 대표적으로 3가지를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

첫 번째 문화원 예술관에서는 문화원의 예술관을 건립한 형태의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에서는 충남 문화예술인들의 소개와 기록 그리고 충남문화원 티비, 전시관, 도서관을 운영하여 미디어 문화자료관의 기능까지 확대되었다.

두 번째 문화 공유 : 이 공간은 문화원의 예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며,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 충남문화원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개설되었다.

특히 새싹 예술가, 핫피플, (충남지역 중심으로 이슈를 만들고 있는 음식점, 카페를 포함한 충남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인을 소개하는 자리로 문화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레지던시 지원과, 일반인 누구나 본인의 행사 및 공연을 홍보해 주는 공간도 마련하여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뉴스레터 신청을 통해 충남 16개 문화원 문화소식을 간편하게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도 개설하여 이전보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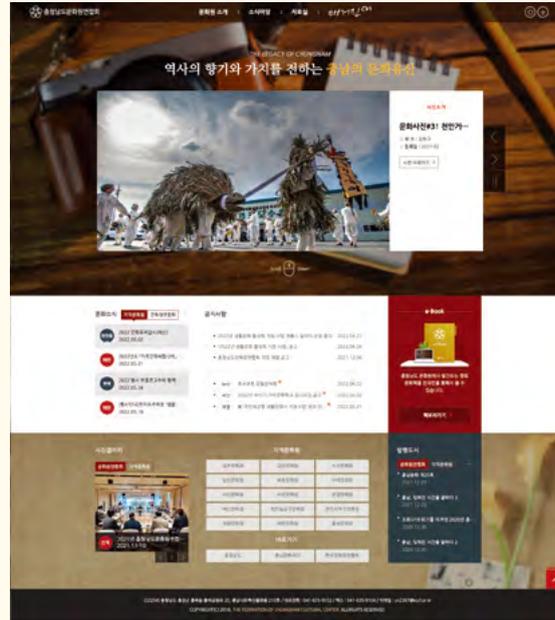


그림2. 이전 홈페이지

생활 밀착형 문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고 개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치관을 지녀야 가능한 일이었다. 충남문화원연합회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식구들의 새로운 문화를 리드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의 계속된 홈페이지 개편의 숙제는 시대에 발맞춰가는 젊은 문화원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다.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대의 흐름을 같이하는 트렌드가 반영된 충남문화원이라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젊은 문화원으로 항상 함께할 것이다. 점차 다가오는 젊은 시대와의 교감을 위해 새로운 문화원의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길 희망한다.



그림3. 개편 홈페이지



그림4. 개편 홈페이지_문화원예술관 이미지



- | | |
|----|--------------------------|
| 1. |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수료식 시 피아노연주 발표 |
| 2. | 바이올린 연주모습 |
| 3. | 드럼 연주 모습 |
| 4. | 피아노 대회 참가 |

나는야! 꿈 부자 홍라엘!

홍라엘 은양문화원



홍라엘

안녕하세요. 저는 은양풍기초등학교 2학년 8반 홍라엘입니다.

저에 대한 내용을 글로 쓰기 위해 참고로, 우리 엄마는 피아노를 전공해서 피아노 학원을 하시고, 아빠는 클래식 타악기를 전공해서 드럼을 가르치시는 드러머예요.

늘 우리 엄마가 저보고 꿈 부자래요.

저는 어른이 되면 피아니스트도 되고 싶고 바이올리니스트도 되고 싶고 가수도 되고 싶고 화가도 되고 싶고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엄마가 그렇게 부르나 봐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4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에 놀러 다니다가 5살 때부터 선생님이 피아노 연주하시는 걸 보고 따라 치면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지금은 드럼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있지만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기를 배워보고 싶고 노래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연주가 잘 안되고 힘들 때는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악기를 연주할 때에는 신나는 노래도 같이 부를 수 있고 기분이 나쁠 때, 속상할 때, 행복할 때 내 기분을 표현해 주고 내 기분을 위로해 주는 거 같아서 내 쌍둥이 친구 같기도 해요. 놀이터에 가면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

것처럼 저는 심심할 때 피아노도 쳤다가 피아노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바이올린도 쳤다가 드럼도 쳐서 내 단짝 친구들과 신나는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다 온 기분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TV에서 하진 않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랑 신사와 아가씨를 엄청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임영웅 삼촌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곡이에요. 요즘 한음 한음 찾아가며 노래를 완성해가고 있는데, 한음 한음 찾을 때마다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악보 보는 법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악기를 연주해와서 그런지 악보 보면서 연주하는 것보단 제가 음을 찾아서 연주하는 것도 보물찾기 하듯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거 같아요. 빨리 곡을 완성해서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요즘은 악보 보는 법도 필요하다고 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은 어렵긴 하지만 제 꿈을 이루려면 필요할 거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영웅 삼촌처럼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곡을 많은 사람들이 연주할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게 해주고 싶고 제가 들려주는 음악과 제가 만든 곡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마법을 부리고 싶어요.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 꿈을 이룬 것을 보고 싶어요.

박수 소리가 행복한 배우, 이승훈

김백보현 극작가

지난 2021년 12월 8일에 열린 논산문화원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가야금과 무용과 나레이션이 결합된 '가야금 시극-숲 이야기'로, 故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곡 「숲이야기」에 스토리를 붙여 무용으로 표현한 공연이다. 이 공연에서 무용을 맡았던 배우는 당시 강경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오늘 소개할 새싹예술가가 바로 그 공연에 출연한 이승훈이다.

공연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당시 강경중학교 연극반 선생님의 추천 때문이었다. 연기는 해보았지만 무용을 해본 적은 없었기에 무용수로 참여하라고 했을 때는 망설여졌다. 춤을 좋아하고 몸선이 예쁘니 현대 무용 느낌으로 안무를 짜보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선생님의 말에 용기를 내보았다. 하지만 평소 아이돌 댄스 스타일만 연습해오던 차라 국악에 맞춰 유려한 춤 선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다. 선생님이 보내 주신 관련 영상을 참고로 전통 무용 및 현대 무용 관련 영상을 계속 찾아보았다. '숲 이야기' 곡을 틀어놓고 영상에서 본 대로 춤선을 바꿔보고자 했다. 연습을 거듭할수록 느낌이 달라졌다. 조금 익숙해지자 가야금 연주의 강약도 더 잘 들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음악에 호흡을 맞춰 몸을 움직이는 작업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처음으로 큰 무대에서 연기해 본 소감을 묻자 “저는 인정받

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공연이 끝난 후 받은 박수 소리가 절 행복하게 합니다.”라고 한다. 떨리지 않았냐고 다시 묻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제게 시선을 쏟잖아요.”라고 답한다. 마지막으로 연기의 매력이 무엇일까를 묻자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나를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제법 배우다운 대답이 나온다. 이승훈은 연기 뿐 아니라 노래나 춤에도 다방면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장래 희망을 묻자 “아직 배우가 되겠다. 확실하게 진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원하는 완벽한 꿈의 모습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언젠간 이뤄낼 수 있는 빛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며 신중한 대답을 했다.

인터뷰 처음에 자기소개를 묻자 “안녕하세요, 저는 강경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신감 넘치는 학생, 이승훈입니다”라고 답했다. 새싹 예술가다운 힘찬 소개라고 생각했다. 학교 연극반을 통해 연기를 시작해보고 그것이 연이 닿아 무용극에도 출연한 그를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새싹 예술가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래본다.





비단고을 금산에 뜬 ‘노래하는 태양’

-버스킹으로 꿈을 그리는 금산고 3학년 신태양 인터뷰-

이 진 금산문화원

☞ 간단한 자기소개

공연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감성적인 음악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만의 특색 있는 음악을 만들고픈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한 가지 장르에 얽매이는 것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두루 접하고 그 속에서 ‘변화하고 살아 숨 쉬는 음악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 추구하고 있는 음악의 장르

어쿠스틱을 기반으로 한 발라드를 주로 하고 있어요. 혼자서 하지 않고 버스킹 팀을 이루고 공연을 하므로 사람들에게

게 편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장르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외에도 Folk rock이나 Modern rock도 관심이 많아요.

☞ 좋아하는 가수

장범준을 좋아해요. 제가 가진 음색으로 편하게 노래 부를 수 있게 하는 음악을 해서 좋아하는 거 같아요. 가사나 멜로디가 많은 부분 동감이 가는 것도 크고 그래서 관심이 가지 시작하다가 좋아한 거죠. 장범준의 곡을 듣고 있으면 마음에 웬지 모를 감정, 감흥 같은 것이 끓어오르는 느낌을 받아요.

💬 꿈을 갖기 시작한 이유

처음에 음악을 접한 게 트로트였어요. 제가 자라던 환경이 대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보던 트로트 방송을 많이 보게 되고 그 방송을 보면 볼수록 뭔가 묘하게 느껴지는 동경심 같은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랑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항상 듣던 음악 역시 트로트였죠. 그것을 듣고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죠. 노래를 부를 때마다 주변에 많은 칭찬을 들었죠. 그 기분이 좋아 자꾸 노래를 부르게 되고 꿈의 모양이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밴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버스킹을 나가게 되면서 꿈의 모양이 좀 더 다듬어지게 된 거 같아요.

💬 인상 깊은 버스킹 장소

버스킹을 하려던 것은 아닌데 뜻하지 않게 버스킹을 한 공원이 있어요. 이슬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아는 형하고 기타 연습 겸 잠시 호흡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하다 보니 공연이 되어 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버스킹이 된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대천해수욕장에서 한 곡을 버스킹 공연을 하였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것 역시 기억에 남아요. 바다의 시원한 바람 여유로운 사람들 풍부한 관심 이런 것들의 정취가 너무 공연의 목적과 잘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그때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지금 친구들과 여러 곡을 준비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대천 버스킹을 위해서요.

💬 기억에 남는 관객

역시 호응이 좋은 관객이 인상에 남죠. 전에 버스킹을 하다 학교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환호도 해주시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호응과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응 받는 것은 뭐

랄까..... 사뭇 다른 느낌인 거 같아요. 둘 다 좋긴 한데, 보다 인정을 깊게 받는 느낌이랄까?

💬 도전하고 싶은 공연

당장은 금산향교 앞에 있는 '충효예공원'에서 해보고 싶어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연을 가치 있게 해주는 관객이 많이 확보되잖아요. 금산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이 그 공원이어서 꼭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막무가내로 가서 앰프를 설치하고 공연하기가 학생 신분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못 하고 있어요.

💬 앞으로의 계획

십 년 후에 이름을 좀 날리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대중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받는 가수가 되고 싶달까? 그리고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공연장에 가득 채운 관객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음악과 나 자신의 음악을 맞추어 가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젊음은 멋있다. 꿈을 이루었을 때의 젊음은 빛이 난다.'

신태양 학생과 이야기하는 동안 머릿속에 맴도는 문장이었다. 크지 않은 이곳 금산에서, 많지 않은 청년들이 꿈을 품는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노력을 한다. 주변에서 어떻게 보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나간다는 것이 무리에 속한 인간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해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은 언제나 옳다. 그 누구의 뜻도 아닌 자신의 뜻을 위해 알바도 하고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마음에 스며왔다.

신태양 학생이 10년 후에 있을 단독 콘서트에 초대했다. 분명히 있을 콘서트가 벌써 기대가 된다.



| | |
|---|---|
| 1 | 2 |
| 3 | 4 |

1. 2021 지역사랑 미술실기대회 작품 '그땐 말이어~'
2. 신가은
3. 2020 지역사랑 미술실기대회 작품
4. 오빠, 동생과 그림그리는 모습

“그림 그릴 때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 새싹예술가 신가은

안은선 태안문화원



2021년 태안문화원에서 개최한 ‘지역사랑 미술실기대회’ 중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가은 학생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은 학생에게 그림 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집에서 어머니와 오빠가 항상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취미로 미술학원에 다닐 만큼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오빠는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다. 아이디어가 풍부한 오빠는 그림 그리기 전 구상을 하는데 많은 영감을 준다고 한다. 어머니, 오빠, 가은, 동생까지 모두 여가시간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드로잉 노트를 늘 집에 구비해두고 함께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환경 속에서 자란 가은 학생이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다고 한다. 그림 그리는 일은 일상이었지만 본인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흔한 미술대회 한번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 학원 선생님의 추천으로 2020년 ‘지역사랑 미술실기대회’에 처음 참여했다고 한다.

2020년 초등학교 6학년 참여 당시 가은 학생은 초등부(고학년)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 이후로 자신감이 생겼고 다른 대회에도 참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태안군에서 개최한 ‘제1회 깨끗한 바다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에서는 중등부 태안

군수상을 수상했고, 2021 ‘지역사랑 미술실기대회’에서는 중등부 최우수상의 결과를 얻었다.

최우수상을 받은 ‘그뻐 말이어~’에 대한 작품 설명을 부탁했다. ‘그뻐 말이어~’는 할머니의 어린 시절 추억을 표현했다. 할머니의 추억을 표현하기 위해 테두리에 어둡게 둥근 효과를 주었고, 시대적 배경에 맞게 한복을 입히고 마당에는 닭, 병아리, 강아지를 그려 넣었다고 한다. 특히 노래 가사는 할머니의 초점에서 쓰기 위해 너무 반듯하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노랫말이기 때문에 흐르는 느낌으로 그려 넣었다고 한다. 할머니의 주름살을 그리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할머니 감정에 이입해 그렸다고 한다.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다방면으로 도전하고 차별 없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한 우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장애인, 동성애자, 미혼모 등 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어 그 편견을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나중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기부와 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앞으로 예술가의 길을 갈 가은 학생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기대하며 소개를 마친다.

보령의 예술인 서양화가 임용빈

김부권 보령문화원

보령지역 화가 임용빈은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베트남전쟁 반대시위, 전태일 열사 분신 등 여러 이슈가 있었던 70년대에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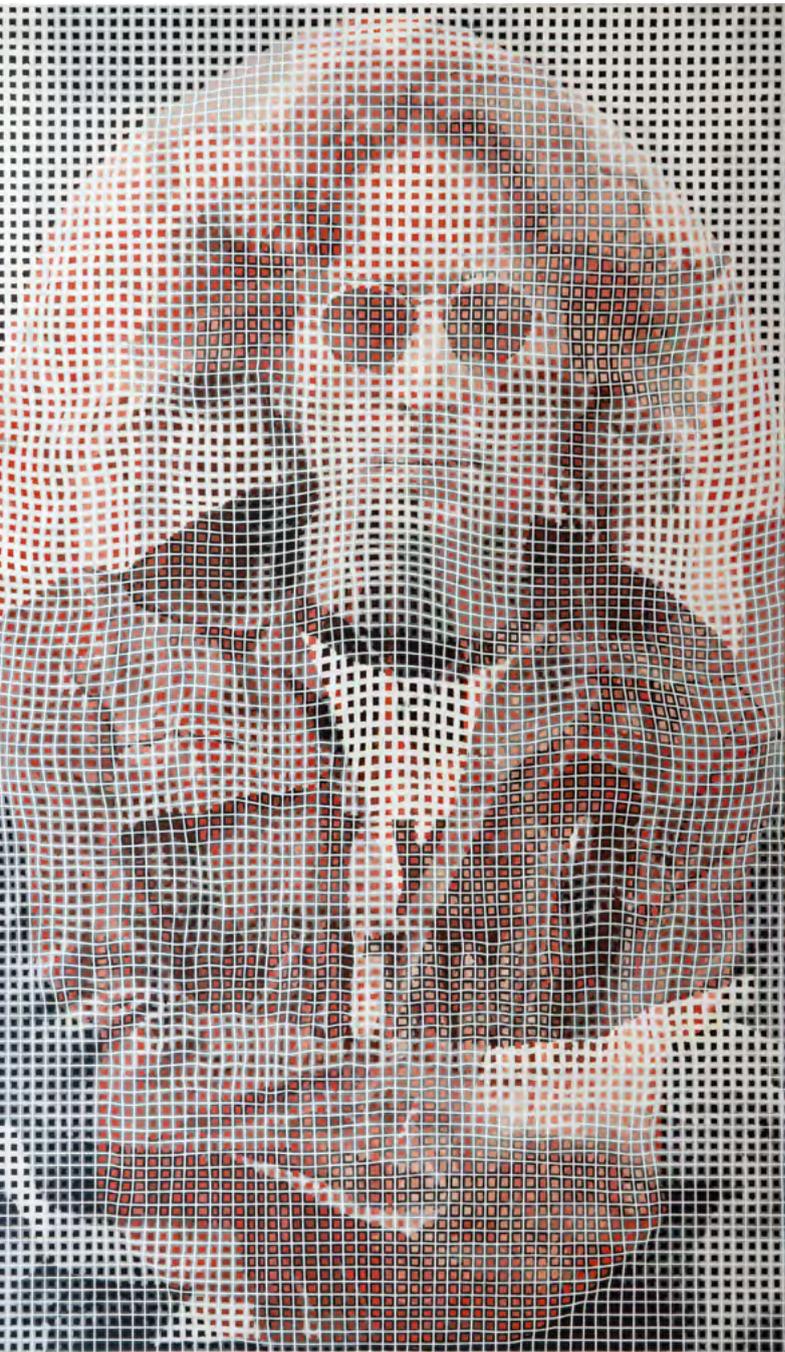
그림을 그리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오십대의 나이가 되었다며 회상하는 작가의 화실은 보령시 청라면 성주산 높은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일꾼이 아니고 작가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은, 미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3년여 하는 동안 매일 같이 시계추처럼 동일한 삶의 반복이 지겨워지고, 자아가 상실된 채 살아가는 직장인이 싫어 지겨운 삶은 살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처음 그림을 시작하던 초심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 뒤 화가로서의 길을 걷겠다 결심하게 된 것은 귀향 후에나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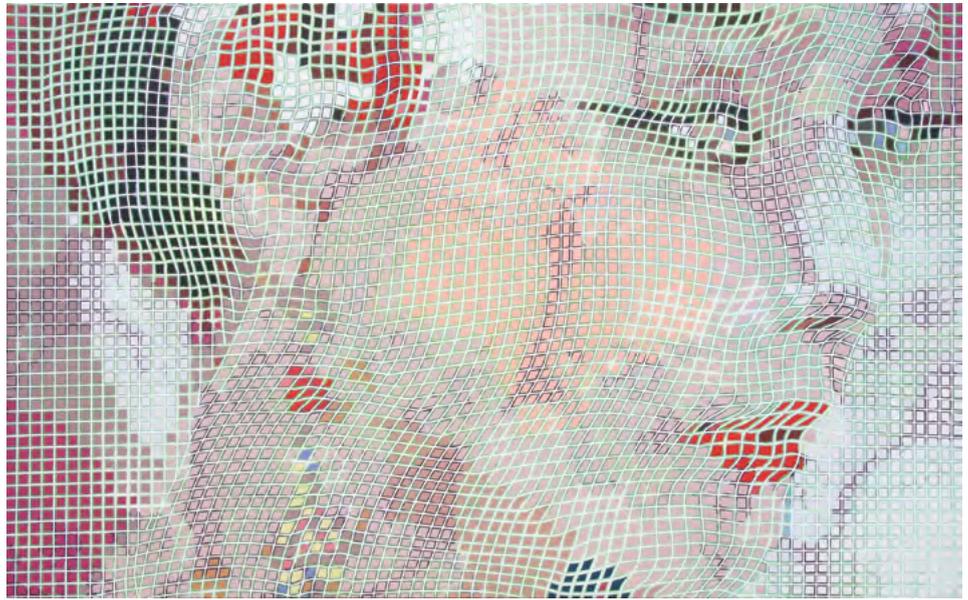
아직도 직업이 화가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작가는 그림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이 찾아진다 하니 천상 그림과 함께 살아야 할 운명 같아 보인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서 쉽게 맞는 대상들, 즉 꽃, 나무, 인물 등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잠시 소풍 가듯이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이 세상 다녀간다면 천상병 시인의 말처럼, 설레고 부푼 마음으로 나의 눈에 비쳐진 풍광들을 봄날 햇살처럼 나른하고 따스하게 발



John Lennon 97.0 x 162.2cm Oil on canvas 2019



About beautiful things 116.8 x 72.7cm Oil on canvas 2019



- 서양화가 **임용빈** Im Yong Bin
- 목원대학교 회화과 졸업(1989~1996)
 - oun교육방송국 스튜디오 세트미술(1997~1999)
 - 대전어항 상징조형물(계) 채색작업
 - 보령 충훈탑 제작참여(2006)
 - 계룡 충훈탑 제작참여(2006)
 - 개인전(2021.11 보령문화의 전당)
 - 개인초대전(2021.11 세종금강문화관 세종보갤러리)
 - 개인전(2019.11 충남도서관기획전시실)
 - 개인전(2019.08 갤러리탑)
 - 개인전(2019.05 모산미술관)
 - 개인전(2017. 모산미술관)
 - 초대개인전(2008, 보령문예회관
현) 보령미술협회 사무국장

산하는 향기 그대로의 선율로, 나는 사각의 평면 위에 단지 그 모습을 서로 다른 색으로, 퍼즐을 맞추듯 조각조각 맞춰 나갈 뿐이다. 그림 속에서의 색이란 빛과 사물의 끊임없는 대화, 시(詩)를 쓰듯이 하얀 캔버스 안에서의 모든 색들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되어 문장을 이끌어 간다. 일상적이고 때론 몽환적인 나의 풍경은 고착되어진 현실만을 담으려 하지 않았다. 서로 다른 풍경도 한 화면 안에 배치하여 형상은 다르지만 같은 느낌이 되도록 색감을 변화시켜 현실을 벗어난 세상도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즉 나는 나의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주로 그린다. 그러나 보는 것은 단지 눈을 통하여 보지만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밖의 대상들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 *서예가 전영하 선생과의 대화*

임용빈은 진지한 사유를 계속하는 작가이다. 타자를 통해 스스로를 보고 그 관계 속에서 사유는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자연과의 끝없는 대화를 통해, 삶도 죽음도 남도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존재감의 크기를 따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뜨거운 열정으로 보령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화가는, 2008년부터 총 일곱 번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현재 보령미술협회 사무국장을 맡아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다.

“빛으로 길을 내다”
서예가 효계(曉溪) 박성호

김예지 서산문화원





박성호 선생님이 쓴 용연서원 현액



서산문화원 한문서예반 수업 모습

효계(曉溪) 박성호 선생은 지난 30여 년간 전통서예에 매진하여 서예의 필법과 정신을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있는 서예가이다. 효계 선생은 한국 최고 서예가 여초(如初) 김응현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후 서예 작업 및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현재는 서산향토문화연구소장, 중국서화예술협회영예주석, 한국갑자서예 고문 등을 맡아 한국 서예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자에 마음을 담는 일, 서예는 작가의 마음을 담는 것으로 획의 굵기, 글자의 비례, 붓놀림의 속도, 먹의 농도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쏟는 섬세한 작업이다. 효계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서예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최근엔 6·25전쟁 때 훼손된 용연서원(조선 숙종이 17년에 건립)을 복원하는데 선생이 현액을 직접 쓰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전히 서법을 다지며 서예에 마음을 쏟고 있다. 또 매년 서예전을 개최하여 서산·태안 지역의 서예 지도자 300여 명을 양성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 한국 비림박물관에 다수의 수비 작가를 배출하였다.

그의 후학 양성에 대한 열정은 ‘안다위한묵연실’에서 깊이 느낄 수 있다. 2003년 서산시 음암면 안다위골에 세워진 안다위한묵연실은 선생님의 개인 작업실을 넘어 후학을 가르치는 교실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으로 접하는 강의는 잠정 중단되었지만,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로 전시관을 꾸미고, 비대면 영상을 촬영하는 스튜디오로도 활용되고 있다.

선생은 “예전 농경사회에서는 다들 농사로 밥벌이하느라 무

엇을 배우는데 아주 오래 걸렸어. 하지만 지금은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에 맞춰 더 쉽게 전통서예를 접했으면 좋겠어”라 하시며 산수가 넘은 나이에도 사회 흐름에 맞추어 서예 보급에 힘을 쓰고 있다. 유튜브 <초고속 한자서예비법>을 통해 70여 개의 서예 강좌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으며, 이 콘텐츠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서예의 정신과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문서예를 어렵지 않게 강의해 서예 입문자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영상 강좌는 입소문을 타 현재 60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효계의 서예 보급에 대한 열정은 지역문화학교 한문 서예반에서도 느낄 수 있다. 그의 쉽고 재밌는 수업 방식은 수강생들에게 꾸준히 호응을 얻어 재수강자와 수강 대기자가 있을 정도다. 수강생들은 저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이상씩 이 강좌를 수강하였기에 수준이 상당하다. 지난달 한국 서예비림협회 전국공모전에서는 수강생 두 명이 대상과 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후학들의 수상 모습을 본인이 수상한 것보다 더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은 가르치고 배우면서 더불어 성장한다는 뜻이다. 그가 이끌고 있는 지역문화학교 한문 서예반은 교학상장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을 매주 손꼽아 기다리는 수강생들과 함께 효계 선생의 후학 양성에 대한 열정이 서예 대중화에 꾸준히 행복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천의 문화예술인 김대기

박은희 서천문화원



현) 충청남도 전문예술단체 전통예술단 혼 대표
 현) 서천군립예술단 전통무용단 기획자
 현)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위원 및
 한류외교분과 부위원장

오늘날 각 지방정부와 지자체는 가장 지역적인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통해 지역의 특징을 살린 독특한 문화콘텐츠 핵심을 개발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역을 브랜드화하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곧 그 지역만의 경쟁력 있는 축제와 문화상품, 지역의 특별한 이벤트, 더 나아가 국제 교류를 실시하여 지역의 대표 브랜드이자 문화콘텐츠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작품을 창작하여 개발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콘텐츠를 국내외 세계에 소개하고 널리 알리고 있는 충남의 전문문화예술가 김대기를 주목하고자 한다.

김대기 예술가는 인구 6만이 채 되지 않은 전통적인 농산어촌 지역인 서천군에서 지난 2008년 전통예술단 혼을 창단했다. 전통예술 즉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통예술단 혼은 김대기 대표가 중심이 되어 지역과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예술을 국내 및 해외 알리고 창조하는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로 강한 문화생태도시 서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충남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충남 무형문화재의 계승 단절의 위기에 무형문화재의 가치 인식과 충남 도민들에게 충남의 고유한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충남무형 문화재 제1호 한산세모시짜기, 제21호 서천부채장, 제24호 태안설위설경을 모티브로 한 연구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공연 콘텐츠 제작을 통해 도민들에게 문화공연과 전시를 활용하여 도내 무형유산의 소중함과 보존 계승의 가치를 전달하였으며, 충청남도 전통예술 브랜드 공연 ‘그랬슈 콘서트’ 총연출을 맡아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통해 충남도내 7개 공연장에서 충남의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소리화’와 ‘모시꽃 피다’라는 작품으로 선보였으며, 2019년 11월 충청남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19 노마드, 예술로 만나다’라는 작품과 2021년 6월 ‘모시꽃 피다’와 ‘빈녀음-임벽당의 노래’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도민들에게 충남무형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공연을 선보였다.

이러한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가 간 교류와 창작을 통한 새로운 공연 콘텐츠 개발과 창작 능력을 배양하였고, 지정만 되어 있고 실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무형문화재 보존회의 현실적 어려움을 도민들에게 전하고 충남무형유산의 계승 발전 방안과 향후 문화예술콘텐츠와 충남무형 문화유산의 만남의 이정표를 제시하여 고유의 문화유산에 대한 도민들의 가치 인식과 이해 확산에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해외문화교류와 공연을 통한 세계 속의 충남 문화역량 홍보한 점을 들 수 있다.

충남의 고유한 정체성을 간직한 문화예술을 통해 국제문화 교류를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서천과 몽골에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작공연과 학술조사,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작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공연과 전시를 통해 차별화된 창작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양 국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

산을 활용한 국제 문화예술교류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2018년에는 외교부가 주최한 아랍에미리트자이드의 해 ‘100주년’ 기념 공연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수행하였다.

2019년에는 일본 시즈오카현 현대무용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한·일 양 지역 무용 분야 교류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2019년 8월 31일에는 일본 나라현에서 개최한 제7회 한일 문화카라반 행사 문화공연을 통해 행사에 참석한 현지인들에게 수준 높은 충남의 공연을 선보여, 충남의 문화역량을 홍보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외교부가 주최하고 주 호주연방 대한민국대사관과 멜번분관이 주관한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 한국주간행사’의 일환으로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19 멜번코리아페스티벌’과 남호주 애들레이드 시에서 열린 ‘남호주 한국음식문화축제’에 초청되어 공연을 선보였다.

이렇듯 충남의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을 통해 충남의 문화콘텐츠를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충남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대기 예술가는 그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지정된 한산모시짜기와 충남무형문화재 제21호인 서천부채장의 공작부채를 모티브로 한 작품 개발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작품화하고, 국내외에 공연을 통해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김대기 예술가는 전통문화유산의 원형인 충남무형 유산의 연구를 통해 전통예술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작품 모형 연구, 무대 공연화에 대한 예술가의 창작 능력 배양, 지정만 되어 있고 실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무형문화재와 보존회의 현실적 어려움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로 창작하여, 보편타당한 문화 규범인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고 있는 김대기 예술가의 뜻깊은 예술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하겠다.

제15회 충남·세종 향토사 대회

곽승일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충남·세종의 고려시대 역사와 문화유산’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충남세종 향토사 대회 주제이다. 이번 향토사 대회는 충남세종향토사연구연합회,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천안박물관, 천안시동남구문화원이 주관과 주최를 맡았고,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후원을 하였다. 작년에는 보령문화원이, 재작년에는 태안문화원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본원의 건물 원사가 조금 협소하고 대회장으로서 마땅치가 않아 천안박물관 대강당을 대관, 올해는 천안지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천안박물관 학예팀장인 정재학 팀장의 1부 사회를 시작으로 참석자를 소개하고, 충남세종향토사연구연합회 이해준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천안시동남구문화원 김윤식 원장의 환영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조한필원장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주현 과장의 축사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국민대학교 홍영의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대회장 내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15개 시군에서 참석한, 각 지역의 향토사학자들과 연구회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기조강연의 내용은 ‘개경의 황궁





국민대학교 홍영의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대회장내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만월대) 문화콘텐츠 활용과 천안의 고려 유산'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천안의 고려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새로웠다. 이어서, 1시간 동안 20분 간격으로 3가지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는데, 서울대 정요근 교수의 '고려시대 천안지역 고을 및 특수 행정구역의 운영과 분포양상', 한얼문화유산연구원 조원창 원장의 '천안지역 고려사지와 고려불상', 경북대학교 김명진 교수의 '천안지역 콘텐츠로서의 왕건과 고려'라는 내용으로 열기 넘치는 주제발표들이 이어졌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문화원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참석자들의 오찬을 마치고, 천안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전시 중인, <개성 만월대 특별전>을 참석자 전원이 전시장 구석구석을 관람하였다. 이후, 다시 대회장으로 돌아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는데, 좌장은 공주대학교 윤용혁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는 대전대 김갑동 교수,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임석규 소장, 문화라의 이용호 대표까지 총3인의 토론자가 등장하였다. 오전 내내 장내에서 주제발표를 했던 3인의 발표자와 열띤 토론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좌장을 맡았던 윤용혁 교수가 토론장을 노련하게 주도하고, 위트 있는 멘트를 가미해가면서 중심을 잡아주었던 점이었다. 그런 좌장의 역할에 다소 지루할 수 있었던 대

회장 내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청중들의 졸음을 달아나게 해 주고, 건조했던 분위기가 촉촉해지는 느낌이었다.

대회는 구부능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간에 이르자, 3개 지자체에서의 회원 발표로 이어졌다.

세종향토사연구소의 윤철원 소장의 '고려시대 호국기록-연기대첩', 보령문화원장과 보령문화연구회장도 역임 중인 황의호 원장의 '고만과 고만정의 위치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인 천안향토문화연구회 임명순 소장의 '천안 봉선흥경사 입지에 대한 고찰'까지 각 지역에서 연구 회원끼리 조사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결과물들에 대해서 타 지역의 청중(회원)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해 보였다. 각 시군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발표를 보고, 듣고, 양자 간 소통을 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향토사 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다.

각 지역의 향토사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이었다. 충청남도 지자체를 매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향토사대회. 내년에는 어디에서 개최될지는 미정이다. 문화원과 향토사라는 두 단어가 멀지 않은 관계인만큼, 문화원에서 지역 향토사의 비약적인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역할로, 또한 부분적인 주요 축이 될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도 깊은 고민과 태도를 갖춰보려 해야 할 것이다.

역사 향기 그윽한 '성주가야길'을 걷다

이관섭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어느새 역사책의 한 페이지 속으로 들어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 사는 고을에 역사와 문화의 흔적이 없는 곳이 어디 있
으랴. 성산가야의 옛 도읍지이자 성주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
주도 찬찬히 뜯어보면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짙은 고장이다.
성주는 고려에서 조선 중기까지 약 600년 동안 대구 김천
구미 칠곡 고령 일원을 관할하던 경산부(성주목)가 있었던 행
정과 문화의 중심지. 성주 읍내를 에두르는 12km 길이의 ‘성
주가야길’을 산책하면 어느새 역사책의 한 페이지 속으로
들어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성리학자로 역사학자로, 의병장으로,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한강 정구(寒岡 鄭逋)선생의 학문을 안고 있으면서 영남유학의
본 고장임을 드러내는 회연서원을 시작으로 성주의 역사문
화 탐방이 시작되었다.

숙종 때 현판을 사사 받아 사액서원이 됐고 1868년 서원 철
폐령에 따라 훼손되었던 곳을 1970년 복원해 지금의 모습
이 꾸며졌다.

5월의 한복판에서 시작된 탐방이었기에 아름다운 매화 명
소 회연서원의 진면목을 볼 수는 없었어도 서원 안으로 조
성된 산책길 따라 자그마한 매실을 한 움큼씩 매달고 선 매
화나무들마다에 눈길을 주며 걷는 즐거움이 상당하다. 짧은
산책로를 따라 계단을 오르면 봉비암에 닿는데 이곳에서부
터 김천까지 이어지는 무흘구곡이 시작된다고 한다.

회연서원을 통해 영남유학의 한복판이었음을 확인한 일행
은 성주가야길의 출발점, 성주읍성의 서문 밖에 위치한 ‘성
박숲’으로 향한다. 성주읍성의 서문 밖에 위치한 ‘성박숲’.
천연기념물 403호로 지정된 성박숲은 300~500년 수령의
왕버드나무 57그루가 성성한 단순림으로 조선 중엽에 서문
밖 마을의 소년들이 까닭 없이 죽는 등 흉사가 이어지자 지
관의 권유로 밤나무숲을 조성했다고 한다. 그 후 임진왜란
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밤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왕버드나

무를 심었다고 전해온다.

여느 숲과 달리 성박숲은 평지에 조성돼 성주군민의 휴식공
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어른 두세 명이 껴안아야 할 정도로
굵은 왕버드나무는 본래 낙동강 지류인 이천(利川)을 따라 14
km나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대부분 잘려나가고 성박숲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동한 돌담과 흙 토담이 어우러진 한개마을은 성
산 이씨가 550여 년 동안 살아온 집성촌이다. 250여 년 전
에 지어진 하회택을 비롯해 기와집과 초가집 70여 가구가 웅
기종기 처마를 맞대고 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돌담길
은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온 듯 ‘하회택’이란 택호가 붙은
전통 한옥 앞에서 잠시 멈춘다. 정원이 아름다운 하회택은 종
부가 안동 하회마을에서 시집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회택을 비롯해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7채의 전통 한옥
은 대부분 빗장이 채워지지 않은 열린 공간이다. 대부분의 전
통 한옥은 대문채를 들어서면 아담한 사랑채와 정원이 나타
나고, 돌담과 연결된 중문 안에는 안채가 숨어 있는 구조다.
세종의 적서(嫡庶) 18왕자와 세손인 단종 1기를 합쳐 모두 19
기로 조성된 태실은 선석산 태봉 정상부에 있는 세종대왕
왕자들의 태를 봉안한 태실이다.

본시 태실은 왕실에서 태를 묻던 석실을 말하는데, 태봉은
텃줄에 연결된 태아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좋은 땅
에 태를 묻어 그 땅의 기를 받아 태의 주인은 무병장수를 기
원하고, 왕실의 무궁한 계승과 번창을 기원했던 곳이다. 이
곳 태봉에 올라서면 풍수지리를 모르는 누구라도 과연 명당
터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약 600년 전의 역사
손길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태실 뒤로 지는 해
를 바라보다 산허리로 내려선다. 명당자리의 기운을 받고
돌아서는 발걸음이어서인지 가볍다.

〈공주문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다

정지은 공주문화원

〈공주문화〉 소식지는 1991년 창간된 이래 30여 년 동안 지역문화를 꾸미고 여며왔다. 이는 단순히 매체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지역문화를 찾아내 그것을 새롭게 되살리고자 하는 지역문화 정체성 모색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공주문화원에서 격월간 발행했던 문화매거진 〈공주문화〉 소식지가 올해 새롭게 내용과 형식에 변화를 추구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격월간지에서 년 4회 발간되는 〈공주문화〉 소식지에 2022 임인년 공주시 시정화두인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로 했다.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와 다시 강한 공주시를 만들자는 ‘갱위강시(更爲強市)’의 뜻이 담겨있다.

두 번째 변화는 〈공주문화〉 소식지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 시각적 효과를 높여 가독성은 물론 읽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4·6 배판, 70여 쪽 분량의 소식지는 2,000부씩 공주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와 해외로도 무료 배포돼 통권 352호(2022 ‘동회호’) 까지 거르지 않고 나왔다.

1991년 모습을 드러낸 〈공주문화〉 창간호는 당시 공주의 인사들을 포함해 공주의 명소 등을 표지로 올리기도 했으며,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향토작가들의 그림, 사진, 서예 등의 작품을 올리고 있다.

소식지의 주요 내용 가운데 특별인터뷰, 공주 그 터의 내력, 공주의 문화유산 등이 독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 현안과 문화 이슈를 다루는 특집 기사로 ‘백제문화제’, ‘공주문화재야행’, ‘웅진백제오대왕추모제’ 등을 기록하여 자료로 남기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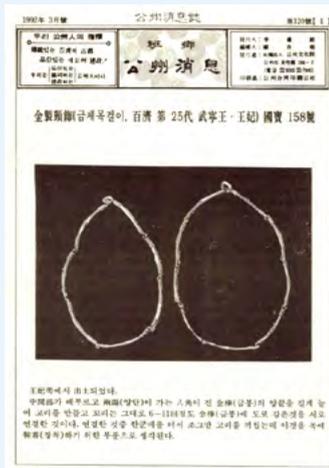
이 밖의 ‘공주의 문화유산’, ‘실록에 보이는 공주 이야기’, ‘공주사진담화, 그날’ 등의 연재기사는 공주와 공주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노력의 일부이다.

〈공주문화〉 편집실은 소식지 창간 이래 유지하고 있는 모토, ‘향토문화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제언자’, ‘건전한 문화 활동과 수준 높은 창작을 위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향토문화와 지역 문화예술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제언자’, ‘건전한 문화 활동과 수준 높은 창작을 위한 비판자’로서의 역할

”



과거 <공주문화> 소식지



새롭게 변화한 <공주문화>



“
 내년이
 고려시대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공의 개경방문 900주년을 맞는 해
 ”

보령문화원, 제2회 만세보령 학술세미나 열어

한흥호 보령문화원

보령문화원에서는 지난 5월 27일 '고려시대 보령의 해양문화와 고만정'을 주제로 제2회 만세보령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내년이 고려시대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공의 개경방문 900주년을 맞는 해로 그가 남긴 '고려도경'을 근거로 당시의 사신 뱃길을 되짚어 보고 그 행로 중 거쳐 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령 해안을 집중 조명해보고자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학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 1 발표자로 나선 황의호 보령문화원장은 '고만과 고만정의 위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고만정이 현재 토정 이지함 묘소 아래쪽에 위치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관련 근거를 밝혔다. 제 2 주제발표에 나선 공주대학교의 문경호 교수는 서공의 고려항로를 문헌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일목요연하게 지도상으로 정리해 보여주며 이해를 도왔고 그 항로에 있던 군산정, 안흥정, 경원정 등 정관에 대해 소개하며 사신들의 여정상 휴식과 환영행사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문광균 박사는 조선후기 원산도 일대 도서민이 국가의 혹독한 세금징수와 잡역부과로 인해 매우 고달픈 삶을 살아왔음을 밝혀, 발표를 듣던 참석자들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계속된 토론회에서도 심도 깊은 질문이 오가며 학술세미나의 열기가 달아올랐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이주헌 태안해양유물전시관장은 황의호 원장의 발표내용 중 '고만'이라는 지명이 한자가 아닌 순수 우리말인 '곶안'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고+ㅈ'의 음가가 '고+ㅍ'으로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 이런 예가 더 있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한남대학교의 이정신 교수는 서공의 고려 사신단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추정이 가능하나 물으며 송 사신이 신변보호 차원에서 해상에 머문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졌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북대학교의 김명진 교수는 착선역(捉船役), 구증역(鉤拯役), 채복역(採覓役) 등 섬사람들이 짊어졌던 과중한 의무를 밝혀낸 것을 높이 평가하고, 당시 섬 주민들의 생활상 중 의식주와 물에 대한 고찰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용혁 박사(전 공주대 교수)는 세미나를 정리하면서 "이런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섬과 섬의 문화자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번영하는 보령시가 되기를 바란다면, 학술적 연구 논의가 심화돼 지역 발전의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초헌관 오세현 아산시장의 헌작



정종호 온양문화원장 인사말



유족대표의 헌화

제10회 4.4 아산독립만세운동 추모제

이지윤 온양문화원

4.4 아산독립만세운동은 일제 강점기인 1919년 4월 4일 아산시 선장면 부두노동자들과 반농반노의 주민들이 선장 장날 군덕리 장터에서 약 200여 명이 대한독립만세운동을 벌이고 헌병주재소를 습격해 1명이 순국하고 114명이 체포된 항일 독립운동이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는 4월 30일까지 60일 동안 무려 1,214회에 걸쳐 빠르게 퍼져 나갔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최초로 3월 10일 당진의 면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했다. 이 운동 이후,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만세운동을 한 곳이 바로 아산의 온양공립보통학교, 현재 온양초등학교이다. 3월 11일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고 한다.

아산지역 둔포, 신창, 선장, 영인면 등 12개 면에서는 광혈 파괴, 상점 방화, 관공서 파괴와 수집 곳 산꼭대기에서 주민들이 밤에 불을 피우고 만세를 불렀던 봉화만세시위까지 강력하게 전개되었고, 아산 3.1만세운동이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선장면에서 4월 4일 마무리가 되었으나 충남에서 참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한분의 순국 외에도 감옥살이와 태형 등을 당한 희생자가 많아 그 독립운동 뜻을 기리기 위하여 온양문화원에서는 4.4아산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및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온양문화원(원장 정종호)은 4월 4일(월) 오전 11시 아산시 선장면 소재 기미독립무인멸왜운동 기념탑에서 코로나19로 아산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취소되고 추모제 행사를



만세삼창



한국무용반의 기원무

“
 아산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독립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아산 발전의
 초석으로 정착시키고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자
 ”

실시하였다.

온양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된 추모제는 오세현 아산시장 및 황재만 아산시의회의장, 도의원, 시의원, 유관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아산의 독립만세운동 추모제를 기념했다.

이날 추모제는 온양문화원 애향 사물놀이 팀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개회, 살풀이 공연, 내빈소개 및 인사, 추모제, 헌시 낭송, 만세 삼창, 유족대표 및 시민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추모제는 김종욱 아산토정관장의 집례로 초헌관 오세현 아산시장, 아헌관 채운표 선장면주민자치회장, 종헌관 김재호 독립유공자 후손, 축관 김원희 온양문화원 이사와 함께 헌작하여 의미를 더했다.

또한 온양문화원 한국무용반의 기원무는 한국의 미와 민족 정서의 단면인 한을 잘 표현한 한국 춤으로 4.4아산독립만세운동의 넋을 기리고, 코로나로 지쳐 있는 마음속 희망의 불꽃을 밝혀 가슴 뭉클한 시간이 되었으며, 장미숙 문인협회 아산지부장의 ‘구국의 횃불 4.4아산독립만세운동’이라는 헌시를 낭송하여 선조들의 독립정신과 뜻을 기렸다.

정종호 온양문화원장은 “아산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독립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아산 발전의 초석으로 정착시키고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자”라고 하였으며, 3.1만세운동은 민족사 최대 독립운동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우리가 더욱 앞장서 나아가자고 전했다.

가족이 함께하는 즐기로운 예절교실

이연주 서산문화원





이처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회는 매우 드물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 속에서는 애석하게도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인성교육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인격적 결핍과 같은 개인적 문제부터 각종 범죄를 포함한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국가에서는 2020년부터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은 국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위에 설명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청소년기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서산문화원도 이러한 사회 흐름에 따라 2020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가족들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예절교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올바른 충효예(忠孝禮) 가치관 형성과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대전의 효 문화 체험 진흥 공간 ‘대전 효! 월드’를 방문하여 각종 교육 및 체험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과 보호자 모두가 교육에 참여하여 예절교육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전통예절문화를 체험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예절 규범을 유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2년 “슬기로운 예절교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74명의 참여자와 함께 ‘대전 효! 월드(한국족보박물관, 한국효문화진흥원)’를 방문하였고, 총 3회차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한국족보박물관을 방문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족보들을 통해 조상들이 어떠한 이유로 족보를 작성했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족보를 통해 자신의 성씨를 이해해 볼 수 있었으며 가족에 대한 유대감 증진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한국효문화진흥원에는 다양한 체험 교육이 마련되어 있는데, 가훈 정하기,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절 규범 발표하기, 가족 간의 소통 방법 등을 통해 가정에서부터의 교육이 올바른 인성 함양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학습하였다. 또한, 한복 착용 후 절하는 법, 인사하는 법, 차 내리는 법 등을 통해 예부터 지켜오던 기본적인 예절들을 익힐 수 있었다.

다수의 학부모들은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을 가정과 학교에서도 중요시하고 있지만, 이처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회는 매우 드물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몇 년 만에 팬데믹 완화로 새로운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 어떠한 사회형태 던 간에 이번 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회 속에서 정서적 공감과 배려의 공동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문화사랑방

김형태 논산문화원



2020년 11월에 처음 시작된 문화사랑방은 사랑방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편안히 참여 가능한 분위기의 작은 콘서트다. 각종 악기 연주, 노래, 시 낭송, 경험담 등 장르의 제약 없이 문화원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취미·아마추어 정도의 실력을 갖춘 분들도 부담 없이 무대에 올라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가끔은 프로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기도 하고 타 지역의 숨은 고수들을 자리에 모셔 그들의 노하우를 듣는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매력을 선사하기도 한다. 특히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한 학기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자리로 인기가 많다.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닫혀 있던 사랑방 문이 4개월 만에 열렸다. 객석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손글씨 쓰기에 대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선보일 기회가 많이 없었던 한 회원의 뛰어난 판소리 실력에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또한, 젊은 나이에 귀춘하여 땀 흘리며 열심히 청춘을 일궈내고 있는 청년 농부의 활력 넘치는 이야기와 인디밴드의 상큼한 노래는 함께하는 모두를 하나로 이끌었다.

문화원이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중에 문화사랑방은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접근 방법 중 하나이다. 일방적인 관람이 아니고 어려운 강연도 아닌, 무대 위의 사람과 무대 아래의 사람들 간에 소통이 오가는 생생한 공연을 꿈꾼다. 문화사랑방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월 마지막 목요일 7시에 열린다.

“
 무대에 올라
 자신만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
 ”





2022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인생을 잇다, 짚풀을 엮다

차승훈 당진문화원

당진문화원에서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인생을 잇다, 짚풀을 엮다’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지난 5월 6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생을 잇다, 짚풀을 엮다’는 벼, 밀, 조, 보리 등 곡식의 이삭을 떨어내고 남은 줄기 부분인 ‘지푸라기’로 공예품을 만드는 짚풀공예교육 프로그램이다. 노령인구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노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당진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짚에서 착안하여 어르신들이 손수 짚으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성취욕과 문화창

작력을 높이는데 그 사업 목적을 두고 있다.

10명의 사업 참여자들은 평균 65세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짚을 이용한 공예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은 작업임에도 그동안 가정 및 사회활동을 통해 체득한 손놀림으로 처음 짚풀공예를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수준 높은 실력을 뽐내었다. 또한 참가자들 중 몇몇은 재료를 집에 가져가 스스로 연습을 해올 만큼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짚풀을 엮고 말고 꼬는 작업이 어느 정도 힘과 근력이 필요한 터라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사님들의 지도



“

기지사줄다리기의 짚에서 착안하여
짚으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전시도 할 예정

”

및 독려로 참여자들 모두 포기하지 않고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

본 사업과 연계하여 지난 6월 3일에는 아산에 위치한 외암민속마을로 체험 및 탐방을 다녀왔다. 단오를 맞아 짚풀로 팔덕선(八德扇)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였는데 참여자들 모두에게 흥미로운 경험이였다. 팔덕선은 여덟 가지 이로움을 주는 부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초가집과 돌담길이 남아 있고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외암민속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새롭게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생을 잇다, 짚풀을 엮다’ 프로그램은 9월 말까지 총 21회 차로 진행이 된다.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에는 두트레, 또아리, 이중둥그미, 연필꽃이 등을 만들고 두 번의 현장학습으로 아산 외암민속마을과 당진 기지사줄다리기박물관을 찾아 옛 선조들의 문화를 접할 계획이다. 마지막 회차에는 완성된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개최하며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는 공예품을 만드는 과정과 작품 사진이 담긴 결과 자료집을 제작하여 참여자들에게 자부심과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산문화원 송파문화원 MOU 체결

김소연 금산문화원

지난 4월 27일 금산문화원은 서울의 송파문화원과 업무협약(MOU)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호 증진 및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예술의 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금산문화원은 금산군의 남산에 신축하여 남산시대(1967-1984)를 열고 당시 시대의 흐름인 국정 홍보 및 문예중흥 사

업을 전개하며,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0년 여러 홍보 수단의 발전으로 국정 홍보 기능이 약화되는 대신 각 지역의 역사를 탐구하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향토사 수집 및 연구 기능이 요구되는 시대에, 금산문화원은 상리시대(1984-2003)를 열고 향토사연구, 문화학교 운영, 금산 인삼축제를 비롯한 4계절 축제와 각종 문화행사를 통하여 전국 문화시



활발한 교류로 상호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자



설 평가에서 우수문화원으로 선정이 되는 등 활발하게 문화 중심 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사회의 발달로 문화원의 영역이었던 많은 사업이 유사기관이나 단체와 중복이 돼서, 금산다락원시대(2005-현재)를 맞이하여 삶이 문화이고 문화가 삶이라는 ‘삶꽃문화사랑’운동을 펼쳤다. 금산문화원의 소속 문화단체는 물론 가장 삶의 기본 공동체인 마을을 사업 대상으로 하여 서로 배려하는 정신이 바로 우리 시대의 문화로 규정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송파문화원이 위치한 송파구는 세계인의 화합의 축제인 88 올림픽을 치른 개최구로서 몽촌토성, 풍납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 등 백제시대의 찬란했던 문화유적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송파산대놀이, 송파다리밟기 등 무형 문화재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송파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의 수준 향상을 위해 송파구와 공동으로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낙엽축제, 송파문화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볼거리·즐길 거리의 제공은 물론 소통과 화합의 통로를 마련해 오고 있다. 더불어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160여 개의 문화예술교양강좌와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역사기행 및 서울 5대 궁궐 투어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매년 향토사료집과 송파문화 책자를 발간하여 지역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한편, 구민들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서화, 문인, 미술, 사진 등 각종 협회와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각 지역에서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며 지역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두 문화원은 각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서로 교류하며 지역의 문화발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금산문화원(원장 장호)과 송파문화원(원장 정병구)의 합의로 2020년도부터 협의가 이뤄졌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체결이 미루어지다 지난 4월 27일 금산문화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교류는 물론 주요업무인 문화, 예술, 학술분야 등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자는데 의의가 있다.

송파문화원 정병구 원장은 금산군 남이면 흑암리 용동마을 출신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출향한 지역인사로서 송파문화원 역사상 처음으로 경선을 통한 취임으로 송파지역에서 활동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 이날 금산을 찾은 송파문화원의 임원진과 회원 20여 명은 오전에 칠백의총 방문을 시작으로 오후에 보석사와 금산인삼시장을 탐방하면서 금산의 역사와 문화와 경제상황 등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금산문화원 장호 원장은 “송파문화원은 인구 70만의 대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풍납토성을 비롯한 유구한 역사문화가 숨 쉬고 문화, 예술, 경제 등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양 기관의 활발한 교류로 상호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자”며 서울서 내방한 송파문화원 관계자와 함께 업무협약(MOU)에 대한 의미를 새겼다.

멈췄던 발걸음을 내딛다

『명사 유흥준과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이미영 부여문화원



“

멈추었던 우리 일상의 첫발걸음!
『명사 유홍준 교수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

부여문화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추었던 우리 일상의 첫 발걸음을 유홍준 교수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으로 시작하였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된 답사는 아직은 조심스러운 시기인 만큼 답사 인원을 30명으로 축소하여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였다. 오랜 기다림의 답사이다 보니 참가자는 물론 진행자인 유홍준 교수님도 무척 설레이는 모습이였다.

답사는 정림사지 주차장에서 집결하여 첫 코스로 구드래나루터에서 황포돛배를 타고 고란사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세계유산 부소산성을 답사하였는데 고란사, 낙화암,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순이었다. 고란사 선착장에서 고란사를 지나 낙화암까지 가는 구간은 경사가 급하여 힘든 코스이다. 일반적으로는 부소산성의 완만한 구간을 지나 낙화암, 고란사 순으로 답사하는데 이번에는 교수님의 요청으로 백마강 구드래나루터에서 고란사나루터까지 상류 방향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여 올라간 부소산은 또 다른 모습이였다.

두 번째 코스는 부여에서 보령 방향으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외산면 무량사로 이동하였다. 무량사 주차장 주변에는 광명식당, 삼호식당, 은혜식당, 돈가스 전문 잡비 등 총 4개의 식당이 있다. 이곳에 가면 어디든 맛집이 아닌 곳이 없다. 삼호식당과 은혜식당은 유홍준 교수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소개된 정갈한 집밥 한상이고, 광명식당과 잡비는 부여의 맛집을 검색하면 나오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맛집이다.

우리는 삼호식당과 은혜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여유롭게 무량사를 답사하였다.

무량사 산사의 모습은 늘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 산의 색



깔에 따라 무량사의 모습도 바뀐다. 개인적으로 산수와 같은 5월과 단풍이 절경인 가을 무량사를 좋아한다.

무량사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반교리 돌담마을』은 유홍준 교수님의 자택인 「휴휴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답사객들이 앉으면 일어나기 싫어하는 힐링이 되는 답사 코스이다. 답사 진행 중 전국 각지의 답사객을 소개하는 시간은 유홍준 교수님 답사의 또 다른 재미이다. “서울에서 오신분?, 경기도에서 오신분?, 전라도에서 오신분?, 경상도에서 오신분?, 강원도에서 오신분?, 충청도에서 오신분?, 그리고 인천에서 오신분?, 부산에서 오신분?, 해외에서 오신분?, 마지막으로 부여에서 오신 분?”

전라도에서 오신분? 하면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에서 온 사람들이 손을 들고, 경상도에서 오신분? 하면 경상남북도와 대구광역시에서 온 사람들이 손을 든다. 충청도? 하면 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 사람들이 손을 든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오신분? 하면 인천광역시는 절대 손을 들지 않는다. 그리고 손 안 드신 분? 하면 부산이요~ 한다. 이것이 지역적 특성이라며 웃으신다. 그만큼 전국 각지와 무려 해외에서도 답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부여의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가장 특성화된 답사 프로그램인 명사와 함께하는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은 이번 답사를 시작으로 6월 25일 『명사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문학기행』, 7월 9일 『명사 유홍준 교수와 함께하는 백제역사문화탐방』, 상반기 답사와 하반기 답사 3회 등 총 6회를 진행한다.

명사의 부여문화유적 설명이 있는 답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서천 단오제

정혜옥 서천문화원

6월 3일 서천문화원 앞마당이 심상치 않다. 유건과 도포 차림의 유림들이 분주한 발걸음으로 제례상이 차려지고 풍물단들은 모여서 길놀이 행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맹연습을 하고 있다. 바로 단오제례를 지내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다. 단오는 한국의 3대 명절 중 하나로, 음력 5월 5일로 다른 말로 '술의 날' 또는 순우리말로 '수릿날'이라고도 한다. 시기적으로 더운 여름을 맞기 전의 초하(初夏)의 계절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풍어제이기도 하다. 단옷날에는 수릿떡을 해먹거나,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화채를 만

들어 먹고, 장수를 기원하는 장명루 팔찌를 만들기도 하며, 그네뛰기, 씨름 등을 했다. 지역의 향교(서천향교, 한산향교, 비인향교) 유림들은 단오제례를 지내기 위해 함께 모여 사전회의와 진행 협의 등 철저한 준비 작업을 했으며 지역의 3개 향교가 협심으로 서천군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으로 더 의미가 크다.

멀리 풍물단의 장구소리가 단오제례의 시작을 알리는 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 깃대를 앞세워 문화원으로 향하고 그 모습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역



“

단오는 한국의 3대 명절중 하나로,
음력 5월 5일로 다른 말로 ‘술의 날’ 또는
순우리말로 ‘수릿날’이라고도 한다.

”

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단오제례가 시작되자 집례가 홀기를 읽으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코로나 이전 단오제는 단오제례와 함께 장명루 만들기, 단오선 만들기, 창포물(머리감기, 발담그기)체험, 연날리기, 옷놀이 대회, 팔씨름대회, 탈 만들기, 창포비누 만들기, 행운의 열쇠고리 만들기, 짚풀공예, 행운부적 만들기, 천연 모기기피제 만들기, 수리취떡 만들기, 포토존 사진 찍기, 제기차기, 굴렁쇠, 투호체험과 서천주막운영으로 먹거리도 함께 나누는 등 풍성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단오제는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단오제례와 단오 체험팩 행사, 관내 초등학교 대상 단오선 체험 활동 지원으로 진행했으며 체험 인증으로 sns 체험 후기를 남기면 기념품을 지급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단오제의 의미를 알리는 계기로 마련되었다.

활짝 웃고 있는 돼지머리만큼이나 서천 지역민의 무사안녕과 풍어, 풍작 등 풍년을 기원한다.





청양문화원 2022년 지역학(충남학·청양학) 개강

전미진 청양문화원

청양문화원에서는 충남 지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2022년 지역학(충남학·청양학)'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충남학 프로그램은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로 4년째 문화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제별로 강의 8회, 현장답사 2회로 5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개강식 날 첫 수업은 '충남 유학의 학맥과 학풍'이라는 주제로 안창욱 충남학 강사의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첫 수업부터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면서 우리 지역학에 관심을 보여주셨다. 강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궁

금한 사항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꼭 배우는 시간이 아닌 서로의 지식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6월 14일은 현장 답사가 계획 되어져 있으며 충남 당진에 가서 천주교 다블뤼 주교 유적지(신리성지)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솔피성지)와 심훈님(심훈기념관)에 대해 알아보고 둘러볼 계획이다. 세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은 직접 현장에 가서 업적이나 생애 하셨던 일들을 보며 배울 수 있는 기회인 듯 싶다. 매년 답사는 다양한 충남의 지역을 다녀와서 인지 개강을 준비하기 전부터 문의가 있었으며 직장으로 인해 수업 참여가 매주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답사는 벌써



“

알찬 지역학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며 문화원에 감사하다.

”

부터 신청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다.

2022년 지역학은 충남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되살리고, 활기찬 미래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인의 의식 함양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수업의 목적을 잡았다.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알찬 지역학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며 문화원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지역학 이론 강의는 충남의 고건축, 백제의 미소에서 추사고택까지, 충남의 여성 문인과 문학, 충남지역의 조선 통신사 자료, 청양의 발굴 문화재 이야기, 문화를 활용한 청

양브랜드 이미지 등 다양한 주제들로 진행되어진다.

올해 4월에 문화원에 입사해서 처음 접해보는 지역학 강좌를 준비하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무척 떨렸는데 강의하신 강사님과 수강생들 덕분에 무사히 수업이 잘 끝났다.

수강생들이 중간중간 질문도 많이 하셔서 강사님도 당황하실 정도로 열의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많이 서툴렀는데도 수강생들의 격려와 따뜻한 말들이 큰 위로가 되면서 앞으로 지역학 수업에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잘 마무리하는 게 임무라 생각한다.

예산시네마 5주년 이벤트 “3000만콤 사랑해”

박지혜 예산문화원

참여기간 1월 12일 ~ 2월 28일 추첨일 3월 2일

3000만콤 사랑해♥

관람객 30만명 돌파 경품추첨이벤트

예산시네마에서 영화 관람만 해도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이 awaits!

- ① 예산시네마에서 영화를 본다면
- ② 관람자수 한명 당 추첨권 한 장 배부!
- ③ 당첨이 되기를 기다리다!

10%

삼성 TV (20인치)

10%

삼성 에어프라이어

10%

삼성 전자레인지

10%

삼성 사운드바

10%

삼성 공기청정기

*경품 상세공고문 22%는 당첨자 본인 부담입니다.

맛있는





앞으로 쾌적한 관람환경과 좋은 영화로
군민 기대에 부응하겠다.



충남 예산군민의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예산 시네마가 군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그 인기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예산 상설시장 옆에 위치한 예산시네마는 2개 상영관 99석 규모로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 수준인 6000원이며 영화관 내부에 편안한 의자와 사운드, 적절한 좌석 배치 등 군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주민 호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이 영화관을 찾고 있어 군민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예산시네마 이용 시 할인 대상은 예산군민에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소년 등이다. 특히 관람료 할인은 예산시네마를 방문해 현장에서 예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할인 대상자들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신분증을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을 제시해야 한다.

예산시네마는 2017년 04월 개관 이후 5년 만에 관람객 30만 명 달성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지난 1월12일~2월 28일로 진행됐으며 지난 4월 2일 추첨을 통해 갤럭시Z플립, 닌텐도 OLED, 다

이슨 에어랩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다.

예산시네마에서는 4월 1일~4월 3일 만우절 이벤트도 진행하여 “오늘은 속아준다!”로 현장에서 예매하는 분들 중 청소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청소년 요금을 적용해 드렸다. 또한 예산시네마에서는 5행시 이벤트를 열었다. 예산시네마로 다양한 의견의 5행시가 제출됐다. 제출된 오행시를 온라인으로 투표하여 당첨된 3명을 선정했다. 1위는 에어팟 2위는 자전거 3위는 눈 안마기를 증정했다.

관계자는 “누적 관람객 30만 명 달성을 기념해 예산시네마를 찾아 주신 관람객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 쾌적한 관람환경과 좋은 영화로 군민 기대에 부응하겠다. 예산시네마를 방문하는 군민과 관람객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며 즐거움과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시네마는 앞으로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인기 영화를 선정하여 개봉하고 예산시네마를 찾는 군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홍성문화원, 성년의 날 맞아 전통의 맥을 잇다

김숙희 홍성문화원

홍성문화원은 맘껏 피어오를 나이인 아름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성년의 날이 되면 전통 성년식을 진행한다.

홍성문화원(원장 유환동)과 청운대학교(총장 이우종)는 지난 5월 16일 오후 4시 청운대학교 청운음악당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올해 성년을 맞는 청운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 성년식을 진행했다.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에 만19세 된 젊은이들에게 우리 전통 예법인 4례 즉 관, 혼, 상, 제 중 첫 번째인 관례에 해당하는 통과례로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옛부터 남자는 20세, 여자는 15세가 되면 좋은 날을 택하여

음식과 술을 장만하고 남자는 머리에 관을 씌우고 옷은 어른의 복식을 하게 하고 비로소 술을 마시게 하며 부르기 쉬운 이름 즉, 자를 지어주며 이때부터는 말도 존댓말로 “하계”를 써서 대접했다. 여자는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아주며 역시 복식을 달리하고 자를 지어 내려 성년이 됨을 축하해 왔다.

해마다 성년의 날에 진행되는 전통 성년식은 청운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운대 공연팀의 식전공연과 홍주향교의 서양모 전교님의 주례와 꽃땀 월전 권혜숙님을 계자빈으로 모시고 청운대학교 성년자들을 대표해서 항공서비스 경영학과 이도영 군과 이지원양이 관자와 계자를 맡아 진행됐다.

성년자의 부모는 성년자와 함께 입장하여 주례와 계자빈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삼가례를 거행했다. 삼가례란 어른이



삼가례복장 의식



성년자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입은 3가지 복장을 갈아입히며, 그 순간순간의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이다.

찬자와 시자는 빗을 가지고 나와 주례와 계자빈 앞으로 가져가 빗에 손을 댄 후에 성년자의 머리를 빗겨주고 찬자와 시자가 퇴장하고 초가례 축사가 이어졌다. 주례는 “길한 달 좋은 날에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니 이제부터는 어린 마음을 버리고, 성인의 덕을 지녀야 한다. 그리하여 건강하게 오래도록 하늘의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하며 초가례 축사를 하고 성년자는 “삼가 받들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초가례 축사에 이어 재가례가 진행됐다. 재가례는 성년자에게 찬자와 시자가 남자는 연두색 옷, 각 모자, 각대, 여자는 연두색 당의를 입혀주는 의식이다.

삼가례는 남자는 관복을 입고, 여자는 파랑색 배자를 입고 난 후 삼가례 축사가 진행된 다음에 어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관자에게는 관모를, 계자에게는 족두리와 비녀를 틀어 주었다.

가관례를 마친 후에 초례의식으로 초례상을 차려 관자에게는 술을 계자에게는 차를 내려주며 주례는 초례축사를 하였다. “술은 향기로우나 과음하면 실수하기 쉽고 몸을 망치기 쉬우니, 항상 분수를 지켜 몸에 알맞도록 마셔야 한다.”는 주례의 초례축사에 성년자는 모두 “삼가 일생 동안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초례상이 치워지고 명자례 순서로 관자와 계자는 자를 받고 성년선언문을 끝으로 올해 성년이 된 학생들을 모두 축하해 주었다.



진행모습



단체사진



우리들의 동요축제 '태안군어린이동요대회'

3년 만에 관객 앞에서 동요대회 참가자들... 열기로 가득 찬 '태안문화원 아트홀'
제16회 태안군 어린이동요대회 개최... 최우수상에 김하은(송암초6) 영예

김동이 태안문화원



3년 만에 200여명 관객 앞에서 선보이며
어린이들의 미성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동요의 선율



태안군민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태안문화원.

태안문화원(원장 정낙추)은 태안군 최대 규모의 문화축제인 ‘태안문화제’를 비롯해 문화강좌와 문화답사를 개설해 추진하는 한편 각종 공모사업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태안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태안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구술채록과 젊은 태안을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는 태안문화원은 연구 실적과 사료 발굴의 노력도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제36회 전국향토문화 공모전’ 특별상을 비롯해 ‘제4회 근현대 민간 기록물전’에서도 한국문화원연합회장상인 우수상을 수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태안문화원의 간판 프로그램인 ‘태안군 어린이동요대회’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경연으로 열리다가 올해는 3년 만에 200여 명 관객 앞에서 선보이며 어린이들의 미성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동요의 선율을 직접 관람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태안문화원은 지난 5월 7일 아트홀에서 제16회 태안군어린이동요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며 건전한 동요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3년 만에 대면 경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선 경연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지난 4월 13일 열린

예선전을 통과한 15팀이 경연을 펼쳤으며, 대금연주자 ‘위로’의 축하공연도 축제의 흥을 한껏 더했다.

참가자와 가족, 응원 온 친구들까지 200여 명이 아트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펼쳐진 경연에서는 송암초등학교 6학년 김하은 어린이가 참가곡 ‘꿈꾸지 않으면’을 아름다운 선율로 완성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하은 어린이에게는 30만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되었고, 내년도 동요대회 축하공연자로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우수상에는 백화초 3학년 강민채, 송암초 4학년 강수정 어린이에게 돌아갔으며, 태안초 4학년 조수아, 근흥초와 송암초의 콜라보 중창팀 ‘보물상자’, 백화초 3학년 김시윤, 송암초 4학년 하늘바다친구 등 4팀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인기상에는 ‘어른이 되는 시험’을 댄스와 함께 열창한 고남초 2학년 이서주 어린이에게 돌아갔으며, 지도교사상에는 한미경 당진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에게 수여됐다.

2007년 충남도내 최초로 시작된 ‘태안군어린이동요대회’가 어린이들의 건전한 동요문화를 정착하고 연중 아름다운 동요를 부르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어린이들의 정서순화를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동요축제로 발전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아크릴 생활아트'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이 슬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아크릴 생활아트' 동아리는 2022년도에 결성한 동아리입니다. '아크릴 생활아트' 동아리는 시민들의 그림 그리기 활동과 문화 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 결성되었고, 아크릴 물감을 활용하여 생활 속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과 접목시켜서 아트 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만든 작품을 전시 및 발표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요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사이클링(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용품이나 폐물을 재생하여 이용하는 것)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아크릴 생활아트' 동아리도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아크릴 물감을 활용하여 옷, 모자, 운동화, 가방 등에 그림을 그려 멋진 작품으로 탈바꿈해서 다양한 생활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리사이클링 활동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휴지케이스, 커피보관함, 연필꽂이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생활아트'를 활동하며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으로 전시 및 발표를 하여 지역 사회에 문화 예술 활동을 알리고 싶은 동아리입니다.

천안시동남구문화원의 위치가 시내 중심이 아닌 외곽 지역

에 자리하고 있지만 '아크릴 생활아트' 동아리를 비롯한 여러 동아리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함께 문화를 즐기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다 소개하지 못해서 대표로 '아크릴 생활아트' 동아리를 소개하였지만, 여러 동아리들이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코로나19로 동아리들의 활동이 제한되었고,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서 문화 활동을 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되어 일상 회복이 되고 있기에 '아크릴 생활아트' 동아리 및 여러 동아리를 통해서 지역 문화가 더욱더 다양하고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늘 한결같은 하모니 '에버그린하모니'

최은지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직사각형 안에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는 자그마한 상자에 한숨, 한숨을 후~, 내쉬고 들이쉬면 하모니카 소리가 물방울 떨어지듯 아름답게 울립니다.

아침 일찍 하모니카 선율을 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실버세대 분들입니다. 이번에 천안시서북구문화원에는 다 같이 매주 모여 하모니를 이루는 '에버그린하모니'를 소개합니다.

'에버그린하모니' 동아리는 문화원 문화교실 수업으로 시작하여, 한뜻인 수강생들이 모여 2019년 동아리로 결성하였습니다. 동아리 구성원들은 평균 연령 70세 이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생활하며, 전문예술가 못지않은 실력으로 하모니카 연습을 합니다. 또한 갈고닦은 실력으로 사랑을 전하는 봉사활동으로 통한 재능기부와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각자 생활과 나이를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번 연습하는 시간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회원들의 열정과 음악에 대한 사



량은 모두와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봉사공연 '입장실버복지센터 연주회(2019)'를 시작으로 지역 축제인 '배꽃길 축제 버스킹(2019)', '서북구문화원 놀이마당 축제 공연(2019)'을 참가하는 것에 더 하여 '생활문화축제 공연(2019,2021)', '샤이니스타를 찾아라(2019,2020)' 등 더욱 더 활동 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결과로 작년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실버스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은 봉사활동으로 시작하여 도내, 전국으로 활동하는데 힘든 기색은커녕 더 즐거워하십니다.

한 회원은 "우리 나이에 모여서 하모니카 부는 것만으로 즐거운 데, 어디 가고 박수받으면 더 즐거워서 열심히 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순수하게 즐기는 모습에 저 또한 자극을 받습니다.

단순한 동아리활동이고 누가 보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적당히 하라고도 하지만 동아리 회원들은 무단으로 지각, 결석한 적 없이 누구보다 진심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금은 유명 하모니카 곡, 대중가요, 트로트 장르 불문하고 다양한 곡을 연주하며, 공연에 어울리는 흥겹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곡, 봉사는 치유와 감상에 어울리는 곡과 즐거운 곡을 분위기와 상황에 맞게 선곡하고 다양한 곡을 연주할 수 있는 벌써 4년차 프로급 동아리 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문화원에 하모니카 선율이 울리면 사무실에 선 들으면서 근무할 수 있으니 매우 좋은 근무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록수처럼 늘 한결같다는 뜻의 Evergreen과 연주하면서 서로 어울리는 하모니 동아리 이름처럼 지금과 같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즐겁게 동아리활동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다음엔 어떤 곡을 연주하실지 기대 중입니다.

공주의 신진작가들의 모임 '00아티스트'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가
젊은 예술가들을 만났을 때,
'00아티스트'

이미정 공주문화원

'영영 아티스트'란 공주의 문화예술 단체인 '백제누리회' 회원 중 20대 회원이 주축이 된 예술가 그룹으로 2020년 'See n 8'展, 2021년 웅진 백제시대 무령대왕의 「'쟁위강국'선포 1,500주년」에 착안하여, '15,00ARTIST'展을 기획 전시하여 백제시대 최전성기 역사적 가치를 현대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서 큰 흥을 얻었다.

올해에는 조선통신사 주제의 '시점·전환'展을 열며 지역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00아티스트는 로컬의 역사문화 자원을 젊은 패기로 표현하고 알림으로써 젊은 예술가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장하는데 특징이 있다.

이들은 단순히 진열된 사실을 넘어, 제각기 풀어낸 시점의 전환을 공유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피상적 관측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젊은 예술가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준 공주문화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0에서 10으로, 100으로 나아가 ∞(무한대) 커지는 00아티스트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현재 공주의 원도심에서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바탕 아래 '조선통신사'를 주제로 공주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중심이 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시 중이다. 이번 전시는 공주의 역사문화와 지역 내 다양한 예술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한 '공주문화원 2022년 동아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보령시 음악 동아리 더머드앙상블

김명희 보령문화원

보령시에서 활동 중인 음악 동아리 ‘더머드앙상블’을 소개합니다.

2021년 2월에 결성된 ‘더머드앙상블’은 구성원 모두가 보령시 거주 직장(사업자)인입니다. 클래식과 전자악기를 결합하여, 다양한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며 행복을 나누고 전하고자 결성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음악 실력을 향상시키고, 틈틈이 재능기부를 통해 보령지역 예술과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며 음악으로 행복한 보령시 만드는데 자그맣게나마 기여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세권 광장에서

음악 전공자뿐 아니라 비전공자라도 음악을 통해 행복해지기 원하는 사람은 단원으로 함께할 수 있기에 시민사회와 소통도 그만큼 개방적입니다.

음악회에 관객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관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시민의 삶과 음악을 더욱 친근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연주를 통한 재능기부에도 적극적이어서 보령시내 크고 작은 행사에 출연하며 문화의 향기를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결성 이후 지금까지 ‘더머드앙상블’이 펼친 찾아가는 공연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콘서트



역세권 광장에서

- 2021. 09 현대시장 내 자체 찾아가는 음악회
- 2021. 08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정원에서 베란다 콘서트
- 2022. 05 대천역 광장 뮤직콘서트
- 2022. 06 역세권 광장 뮤직콘서트

‘더머드양상블’의 창립을 주도한 고영곤 매니저는 음악 전공자가 아닙니다. 직장 생활 중 늦깎이로 배운 악기 연주가 좋아 뜻 맞는 사람끼리 함께 연주하고 그 연주 소리에 행복해하는 분이 있다면 삶이 더욱 행복해질 것 같아 주위에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피력하였다 합니다. 열정이 느껴지니 사람이 모이고 실제로 연주단을 만들어 공연을 갖다보니 직

장 생활의 피로감이나 무기력증이 싹 가시고 새로운 활력으로 심장이 힘차게 뭉뚱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감정이 단원들 뿐 아니라 관객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연주회 때마다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레퍼토리 구성도 한 몫한다고 하네요.

‘더머드양상블’의 악기 구성은 건반, 퍼커션, 플룻, 클라리넷,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기타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악기로 채워나가 명실상부 보령시를 대표하는 음악 동아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대천역에서



아산사랑색소폰 동아리 수업

새로운 공연무대의 꿈을 펼쳐라!

김숙자 온양문화원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온양문화원 1층 북카페에서는 신나는 색소폰 소리가 흘러나온다. 평균 연령 선이 넘은 5060세대들이 예전 TV에서 나오는 색소폰 선율을 들으며 막연하게 동경만 했던 꿈을 이루는 시간이다.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의 바쁜 일상을 잠시 쉬어가며 신나는 트로트로 한 주간의 쌓인 스트레스를 속 시원하게 푸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다. 이 힐링의 시간 속에 '아산사랑 색소폰 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아산사랑 색소폰 동아리는 취미가 같고 친분도 있지만 각자 속한 음악실이 다르다 보니 함께 연주할 기회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동아리 구성을 시작하게 되었고 연습 공간으로 온양문화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동아리 회원들은 대부분 직장인으로 매주 수요일이면 퇴근



아산사랑색소폰 동아리 회의



아산사랑색소폰 동아리 공연 모습



아산사랑색소폰 온양온천천 공연 모습

하자마자 온양문화원으로 달려온다.

하루 일과로 피곤할 만도 하련만 김밥이나 간단한 간식으로 요기를 한 후 색소폰 연주에 취해 아홉시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에 집중한다.

더군다나 올해는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지원까지 받다 보니 더욱더 연습을 게을리 할 수가 없다는 게 동아리 회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무엇이 그리도 재미있는지 하하 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다기도 합주가 시작되면 진지함과 감성 충만한 연주의 장이 펼쳐진다. 요즘은 공연장이나 길거리 버스킹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악기 중 하나가 색소폰이다. 손쉽게 색소폰을 접할 수 있다 보니 요즘은 색소폰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반면에 힘이 들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구성진 소리로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카랑카랑 울리는 소리로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도 하는 색소폰 소리는 듣는 사람도 연주하는 사람도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준다.

색소폰은 호흡량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소리가 크다 보니 방음시설이 된 공간이나 한적한 곳에서만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온양문화원! 온양문화원은 춥거나 더운 날씨에도 상관없이 연주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아무리 색소폰을 불어도 민원 발생이 없으니 마음 편히 연주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공연 문화가 조금씩 기지개 켜고 있는 요즘, 나 역시 아산사랑 색소폰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마음껏 꿈을 펼쳐본다.

춤추는 실버

오다영 당진문화원

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와 저와의 인연은 2021년 초에 한국무용 강사로 활동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맡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무용실에 모여서 연습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제 우려와는 다르게 어머니뻘인 수강생들은 답답하실 텐데도 마스크를 쓰고 구슬땀을 흘리며 적극적으로 강좌에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한국무용에 대한 수강생들의 열정이 대단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무용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춤입니다. ‘고전무용’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흥이 날 때 ‘어깨춤을 춘다’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는 춤사위를 누가 정해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깨춤을 추며 장단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몸에 배인 호흡과 춤, 한없이 자연스러운 우리나라의 춤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무용인 것 같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문화원 3층 무용실에서 같이 땀을 흘리며 연습을 했고 서로 의지하고 춤 연습에 매진하다보니 금세 어머니들과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21 사이니스타를 찾아라-충남·세종 지역 예선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큰 대회 인지라 다들 겁을 내셨지만 문화원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

를 받아서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원 1층 공연장에서 무더웠던 여름에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어여쁜 한복을 입고 하얀 버선코를 보이며 그동안 연습했던 입춤을 아름답게 추셨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작품을 연습하고 처음 서는 무대였고 또 오랜만이라 많이 떨리셨을 법도 한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너무나 잘해주셨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이니스타를 찾아라’를 계기로 저희 동아리는 더욱 더 발전했고 2021년도 당진예술제와 상록문화제 그리고 당진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발표회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춤추는 실버는 계속될 것이며 더욱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아내풍물단 길곳



나아내풍물단의 인사
가락장구

나아내풍물단의 우리가락

김소연 금산문화원

올해 5월부터 금빛시장에서는 장날과 휴일마다 금산문화원이 주관하는 거리 문화공연이 열리고 있다. 침체되었던 문화예술 활성화를 금산군의 문화예술단체인 금산문화원, 금산다락원, 금산 문화의 집, 금산추부문화의 집, 금산예총의 생활문화동아리들이 모여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6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 금빛시장으로 나아내풍물단의 공연을 보러 간다. 나아내풍물단은 1998년 금산문화원 문화학교 풍물반을 수료한 주부들이 모여 결성하였다. 처음에 9명으로 시작된 풍물단은 해가 갈수록 회원의 숫자가 증가하고 기량이 발전하여 금산 군내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대외 행사에 많은 초청을 받고 있다. 2002년에는 충남도지사기 주부풍물경연대회에서 장원을 하였고 이후 많은 공연을 하였다. 이후 2022년 현재까지 수많은 대회에 참여하며 화려한 기량을 뽐내고 있다.

나아내풍물단의 길곳으로 공연이 시작되었다. 흥겨운 가락이 시작되고 단원들은 점차 점차 가락을 입히기 시작했다. 발이 들썩이고 자연스레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가락은 역시나 힘이 세다.

사회를 맡으신 금산문화원의 전병만 사무국장님이 나아내풍물단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다. 나아내는 금산의 옛



사물놀이
정유동 선생님



난타, 사물놀이

이름인 진내(進內)에서 進(나아가갈 진)을 이어받은 이름이며, 주부들로 구성된 회원들이 모두 누군가의 아내라는 점에서 '나는 아내다.'라는 선언과 의미로도 읽히는 이름이라고 한다. 나 안에 하는 말과 동일한 음가를 가짐으로써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던 여인들이 내 안에 죽어있던 신명을 다시 살린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주부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내풍물단의 공연을 보고 있으면 저분들이 내가 아는 분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공연복을 입고 악기를 들면 누구의 엄마, 앞집 가게 아주머니는 사라진다. 장구를 치며 상모까지 돌리며 여유롭게 웃으시며 공연을 이어나가시는 걸 보고 있자면 국악한마당에 나오는 예술단원을 보는 듯했다. 길곳 공연이 끝나고 가락장구 무대가 이어졌다. 흥겨운 노래 가락에 어우러진 공연에 박수소리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관람석에서 어르신 한 분이 일어나 지갑을 여신다. 그리고는 장구에 파란 만원 짜리를 꽂아 주신다. 금산의 정이 이렇다. 무더운 여름날 흥겨운 장구 가락을 들려주는 공연자들에게 무심한 듯 톡 응원의 한 마디를 보내신다. 징소리를 시작으로 나아내풍물단의 사물놀이가 이어졌다.

지친 기색 없이 서로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가락을 주고 받으며 이어지는 공연에 관람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더욱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아내풍물단을 지도하고 계시는 정유동 선생님의 장구 공연이 이어졌다. 처음 시작부터 장구 소리가 남다르다. 궁채와 열채가 손에 붙은 듯, 떨어진 듯, 장구의 울림이 작아지는 듯, 커지는 듯하는 공연이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금산의 농악을 이어가고 있는 선생님의 열정이 돋보이는 공연이었다.

마지막으로 난타와 사물놀이가 어우러진 공연이 시작되었다. 난타로 시작한 공연에 사물놀이가 합쳐지며 신명나는 가락을 만들어냈다. 무더운 여름날임에도 지치지 않는 기색으로 열정적인 공연을 보여주는 나아내풍물단에게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나중을 기약하며 이날의 공연을 마무리되었다.

공연이 끝난 후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비가 내렸다. 이날의 공연을 위해 열심히 연습한 나아내풍물단의 마음을 하늘도 알고 비를 미뤄주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도 감복한 나아내풍물단의 공연에 대한 열정을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응원하고 싶다.



쪽빛하늘 천연염색공예 동아리

정혜옥 서천문화원

다루기 까다롭고 비싼 재료지만 천연염색이 주는 건강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된 동아리가 있다. 10명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쪽빛하늘 천연염색공예 동아리로 서천의 들과 산에서 얻은 색색의 꽃잎과 나뭇잎 등을 이용하여 염색을 하고 스카프, 옷, 인형 등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크고 작은 축제는 물론 생활문화 축제 등 타 지역 축제에도 참가하며 천연염색의 아름다움과 회원들 각자의 솜씨도 자랑하고 있다.

천연염색 공예의 매력은 양파와 같이 까도까도 끝이 없다고 한다. 조금만 배우고 시간을 투자하면 나만의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 계절의 변화를 나의 작품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점,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다는 점, 바느질을 하는 동안 수다를 떨며 회원들 간에 친목을 다지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점 등 그 매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다.

빨리빨리 만들어 내는 화학염색과 달리 천연염색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소재로 염색하는 것이다. 화학염색의 다양하고 화려한 각가지 색이 눈을 자극하는 반면 천연염색은 주위에서 친근하게 느껴지는 자연의 색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을 보는 것과 같은 편안한 색감을 얻을 수 있어, 눈을 피로하게 하지 않고 차분한 정서를 만들어 준다. 또한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우리의 몸에도 해롭지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염색과정은

- ① 염료로 색을 우려낸다.
- ② 우려낸 물에 작물을 담근다.
- ③ 염색한다.

- ④ 맑은 물에 헹군다.
- ⑤ 매염제를 풀어 색을 안착시킨다.
- ⑥ 햇볕에 말린다.
- ⑦ 1~6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 힘든 과정을 오롯이 해내는 회원들은 서천의 들판과 산을 헤집고 다니고, 색을 들이고 수다를 떨며 작품을

만들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천 한산모시 공예공방에 오면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다.



동아리 수업



충남미술대전 참가

민화, 평생의 벗을 삼다. 청심회

유소정 태안문화원

지난 2018년 태안문화원에서 민화 강좌가 개설된 이후 나이를 가리지 않는 배움에 대한 열의로 뜨거운 곳 태안, 이곳을 감도는 평생학습의 흐름에 민화라는 배를 띄우며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단체가 있다. 가족 같은 끈끈함으로 뭉친 청심민화연구회이다. 청심회는 청심(淸心) 유소정 작가의 지도 아래 민화의 계승과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태안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민화 교육과정의 수강생들이 주축이 되어 2018년 결성되었다.

청심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태안문화원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동아리 지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모인다. 이 시간을 통해 유소정 작가로부터 가르침을 얻고, 회원 간에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40대부



충남미술대전 민화부분 수상-강건희

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이루어져 있고, 친목뿐만이 아니라 전국민화공모대전, 충남미술대전 등에서 수상한 이들이 여럿이다.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작품을 깊이 있게 다루고 신진작가의 등용문이 되고 있다.

매년 청심궁중민화회원 전시를 하고 있으며 올 봄에는 충남도청 다움아트홀에서 민화 초대전을 열었고, 태안군립중앙도서관 전시, 태안국화축제에서 부스전시, 문화회관에서 아름다운 동행전에 꾸준히 전시 참여를 하고 있다. 태안문화원은 다른 지역의 평생교육 시설과 비교해서 너무도 쾌적한 학습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과 동아리 활동이 연계되어 기초부터 중급, 고급과정까지 단계별로 과정을 익히며 실력을 쌓는 커리큘럼이 있다. 유소정

작가는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주제 별로 다양한 화제를 주고 배울 수 있다. 모사도 중요하지만 기초과정 이후에는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창작활동도 가능하다. 그는 민화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많은 그림을 접하고 그려봐야 한다는 철학이 있다.

앞으로 정기 회원전을 열어 민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다. 내년에도 각종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을 준비하는 데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지역 내 민화계의 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며 민화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그림이 되기를 염원하는 청심회가 아름다운 꽃이 피길 기대해 본다.

2022년 충남문화원 주요 추진사업 실무회의

충남 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함께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기본 지침 안내와 의견 교환을 위한 '2022년 주요 추진사업 실무회의'를 3월 17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충남 문화원연합회는 매년 지방문화원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표준 지침을 안내하고 지방문화원 실무자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더 나은 사업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충남의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문화생활 진흥에 앞장서 생활문화의 대표 축제인 충남생활문화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과 충남

지역의 근현대 시대를 중심으로 구술 채록을 진행하여 하나의 스토리로 엮는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을 매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있어 전통문화와 생활문화 분야에서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충남문화원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강명언 제주문화원연합회장의 '문화예술의 미래 비전'의 주제 강연을 통해 현재의 문화 예술 트렌드와 이를 활

계서무 프로그램인 이카운트 이용 사례를 현직 지방문화원 실무자의 발표를 통해 듣고 업무 노하우를 공유함과 동시에 의견 교류를 진행하였다.

17일과 18일, 양 이틀간은 전문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제주 주요 역사문화장소를 탐방하는 일정을 진행하였다. 유명 문화 예술 작가의 전시가 진행되는 빛의 병커, 김영갑 갤러리 등을 비롯하여 제주의 대표 자연유산인 섭지코지와 만장굴, 그리고 제주 지역을 형상화하여 만든 김녕미로공원을 탐방하며 문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탐방을 진행하였다.

문화원연합회는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간 '2022년 충남문화원 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진행하였다. 지방문화원 임직원 55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초빙강연, 실무 사례를 통한 역량교육, 제주 유무형 역사문화 탐방 등을 통해 문화예술 사업 추진 능력 향상 및 지역문화 선진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화하여 미래 문화 트렌드를 선구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고민하고, 허남춘 제주대학교 교수의 '제주 역사문화의 이해'를 통해 제주의 고유역사를 통한 특색 있는 문화생활의 배경과 역사를 매개로 한 문화발전의 원동력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문화원의 대표 문화사업인 문화학교 강좌와 관련하여 수강비 카드 사용과 회



온양문화원

제10대 정종호 온양문화원장 선임

정종호 온양문화원장 무투표 당선
- 2026년 6월 30일까지 온양문화원 이끌어 -

어간 온양문화원은 5월 3일 ~ 4일 후보자 접수를 받은 결과 현 원장이 단독 출마함에 따라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의거,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이로써 온양문화원은 5월 19일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호)의 진행으로 정종호 원장의 당선을 공표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정종호 원장은 그동안 온양문화원의 내부적 역량 강화와 회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아산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각종 문화 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아산시민들의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주요 약력으로는 2006년부터 온양문화원

부원장 역임, 전)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현)그린식품 대표, 현)한국연식품 협동조합 연합회장, 현)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정종호 원장은 소감을 통해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으로 내 삶을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지 배우고, 익히고, 참여하여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며 풍요로운 삶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회원 상호 간 화합과 문화원에 방문하는 남녀노소의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여 아산문화의 재창달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온양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온양문화원 임원총 선출 이사 19명과 감사 2명에게도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제10대 온양문화원장에 정종호(72, 현 온양문화원장)씨가 무투표 당선됐다. 정종호 원장은 제8대 잔여임기를 시작으로 제9대 임기가 오는 6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에 들

서산문화원

‘청심민화연구회’ & ‘The그리다’ 동아리 연합 전시회

지난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충남도의회 1층 다목적홀에서 서산문화원 민화 동아리 ‘청심민화연구회’와 수채화 동아리 ‘The그리다’가 연합 전시회를 열었다.

2021년 11월에 개관한 다목적홀은 지역 신예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지원하고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관 후 꾸준히 다양한 전시를 제공하고 있다.

‘청심민화연구회’ & ‘The그리다’ 연합전에서는 유소정 작가의 ‘죽하맹호도’를 포함한 민화 23점과 강선화 작가의 ‘작약’을 포함한 수채화 16점인 총 39점의 수준 높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동아리 회원들은 전시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도 하며 작품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나타냈다.



이번 전시는 지역 동아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었고, 지역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도를 높여 팬데믹 이후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논산문화원

소소하지만 행복한 전시 '소행전'

논산문화원은 단지 통로에 불과했던 1층 복도를 전시 조명과 액자 레일을 설치하여 전시실로 탈바꿈하였다. 2019년부터 작은 전시 공간에서 소소하지만 행복한 전시라는 의미를 담은 소.행.전이 열리고 있다.

현재까지 송지연, 윤지은, 류재민, 윤소리, 강누리, 변정희, 황효실, 조훈식, 김명숙, William R. Pugsley, 김명석, 윤희순, 손희선, 이선희 등 많은 예술가와 문화학교 세밀화반, 수채화반과 한국화반 수강생들이 전시에 참여했다. 한국화, 서양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되어 매번 관람객들에게 신선함을 전달하고 있다. 전시 기간을 한 달씩 기획하여 작가를 충분히 알리고 작품도 여유 있게 관람할 수



있다.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 작가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예술에 한층 가까워질 기회를 주는 셈이다. 소행전을 통해서 논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소개되고 더 많은 시민이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전시지만 공급자와 수요자 서로 공감하는 소행전이야말로 지역 문화를 꽃피우는 자양분이다. 지금도 1층 복



도 전시실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향기를 발산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금) 제11·12대 당진문화원장 이·취임식이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제11대 유장식 원장이 이임하고 제12대 김윤숙 원장이 취임했다. 14시부터 시작된 이·취임식은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강사, 동아리팀이 출연하여 한국무용과 난타 공연으로 식전 축하공연을 장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장식 이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당진시장·지역총화협의회장 명의의 공로패를 각각 받았으며 제11대 당진문화원 임원 대표로 이이호 이사가 유장식 이임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임하는 유장식 원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에서 큰 문화행사를

당진문화원

제11·12대 당진문화원장 이·취임식

했다. 이어서 이임원장 공적 소개와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문화원 정기 전달, 꽃다발 증정

개최하지 못해 섭섭하고 아쉽다”라며 “하지만 앞으로도 문화원과 함께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제12대 당진문화원장으로 취임한 김윤숙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턱이 낮고, 행복한 문화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윤숙 취임원장은 지난 4월 14일 제12대 당진문화원장 선거에 당선되어 2026년 5월 19일까지 당진문화원 및 당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앞으로 4년간 대내외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방문화원 상반기 소식



서천문화원

제18대 서천문화원장 취임식

서천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의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 역사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펼치고 있는 서천문화원의 제18대 서천문화원장 취임식이 2022년 2월 4일 진행되었다. 신임 최명규 원장은 서예·문인화 부문 명인으로 대한민국 2021 예술문화대상, 2021년을 빛낸 예술인 대상, 창암 대한민국 휘호대회 최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과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를 진행했으며 수필부문에서도 등단을 하고, 시집『빈 새장의 문을 열어놓다』 출판과 다수의 대회에서 수상을 하였다. 또한 한국예총 서천지회장 및 서천문화원 부원장을 역임하면서 지역의 문화와 예술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노박래 군수와 나학균 서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충남문화원연합회 유환동 회장과 지역 기관단체장, 서천문화원 회원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석했다. 최명규 원장은 문화예술이 쉬지 않고 흐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는 포부와 함께 글로벌 시대답게 전시 및 문화역사관 등 새로운 문화를 담아낼 규모의 원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박래 군수는 18대 임원진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서천문화원의 역사를 써주기를 기대하며 문화원의 전시 공간 및 사업 진행 공간 부족으로 불편함을 감수해 오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제18대 임원의 임기는 2022년 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이며 서천문화원 60여 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임원들의 활동을 바란다.

홍성문화원

최덕휴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 및 세미나 개최

5월 18일,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에서 최덕휴 기념관 허경숙 관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주민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덕휴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작품 초대전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시회 개막식은 관내 주요기관장 및 미술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유환동 원장 및 최화백의 후손이자 용인시 광복회장을 맡고 있는 최희용 회장의 인사말씀과 최화백의 약력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전시장에는 최화백의 작품 40여 점이 소개되었으며, 문화예술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개막식이 끝난 후 1층 공연장에서는 '최덕휴 회화세계의 새로운 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미술평론

가 임두빈 한국미학미술사연구소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단국대학교 김선명 교수, 홍익대학교 김영진 교수, 유희만 화백, 청운대학교 김기연 교수가 참여하여 최화백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조망했다. 최덕휴 화백(1922~1998)은 홍성이 낳은 서양화가, 독립운동가로 1922년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에서 태어나 홍성보통학교와 휘문중학교를 졸업하고 화가의 뜻을 키우기 위해 일본에 유학 중 일본군에 징집당해 중국전에 투입되었다. 이후 탈출에 성공한 후 중국군을 거쳐 한국 임시정부 광복군으로 항일전에 참여, 조국 독립



에 헌신하였다. 최화백은 광복 후 조국으로 돌아와 홍성고 휘문고 경기여고 등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였고, 서울대와 홍익대 교수, 경희대학교 사범대학장등을 역임하는 등 후진 양성에 힘썼다. 교직 생활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자원입대해 1956년까지 육군본부에서 복무하기도 했다. 독립운동의 공로로 무공훈장 화랑장, 서울시 문화상, 국민훈장 모란장, 건국훈장 애족장 등을 받았다.

2022 충남문화원 상반기 현황

| 문화원명 | 소재지 | 설립일 | 원사총면적(㎡) | 원장 | 사무국장 | 직원 | 전화/팩스 |
|----------------|-------------------------------------|-----------|----------|-----------|-------------|--|---|
|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 홍성군 홍북읍 흥예공원로 20, 충남내포혁신플랫폼 210호 | 87. 02. | | 회장 유환동 | 사무처장 조남민 | 박형근 조민영 | T. 635-9102 F. 635-9104 |
|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 29 | 58.04.20. | 487 | 김윤식 | 곽승일 | 이 슬 손영주 | T. 564-1022 F. 563-1021 |
| 천안시 서북구문화원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3로 7-11 | 63.05.10. | 275 | 이종석 | 신광식 | 문경희 최은지 | T. 581-2101 F. 582-1725 |
| 공주문화원 | 공주시 대통1길 66(반죽동) | 54.12.16. | 2,160 | 이일주 | 현대수 | 양문숙 정지은 김선아 | T. 852-9005 F. 856-6746 |
| 보령문화원 | 보령시 대흥로 63 | 56.03.02. | 739 | 황익호 | 한흥호 | 김명희 맹충구 | T. 934-3061 F. 936-3071 |
| 온양문화원 | 아산시 남산로 28 | 57.05.10. | 824.2 | 정종호 | 김형기 | 이지윤 박현미 박상규 | T. 545-2222 F. 542-4444 |
| 서산문화원 |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 | 57.06.15. | 1,884 | 편세환 | 김영철 | 이용배 김윤옥 길현정 윤재경 김예지 이연주 김혜린 | T. 669-5050 F. 669-4567 |
| 논산문화원 | 논산시 관촉로 113-16 | 57.11.14. | 1,757 | 권선옥 | 이준창 | 전현희 고승연 김형태 김창숙 | T. 732-2395 F. 732-2394 |
| 당진문화원 |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 | 55.09.01. | 1,130 | 김윤숙 | 강대원 | 이아름 차승훈 모선호 김아담 | T. 354-2367, 357-2367 F. 356-3850 |
| 금산문화원 |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 67.11.18. | 1,203 | 장 호 | 전병만 | 이 진 김소연 차주희 | T. 754-2724 F. 754-6611 |
| 부여문화원 |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 54.03.01. | 3,432 | 정찬국 | 김인권 | 이미영 박진수 김미완 고수연 | T. 835-3318 F. 833-3318 |
| 서천문화원 |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8 | 65.01.26. | 4,272 | 최명규 | 박은희 | 정혜옥 김정환 | T. 953-0123 F. 953-0133 |
| 청양문화원 |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 55.04.17. | 945 | 임호빈 | 복은주 | 차승원 김 진 전미진 | T. 943-4774, 943-4775 F. 944-1030 |
| 홍성문화원 |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 54.03.31. | 2,518 | 유환동 | 조남민 | 김숙희 이경진 모태희 | T. 632-3613 F. 633-1199 |
| 예산문화원 |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 55.10.15. | 2,530 | 김종옥 | 박세진 | 〈본원팀〉 이충환 이수영 장혜민 김 란 〈생활문화축제팀〉 홍성희 하종민 최영웅 〈극장팀〉 장화수 이다연 박지혜 최유주 | T. 335-2441 (문화원) 332-2441 (별관) 335-2331 (시네마) F. 334-4330 (문화원) 335-5330 (시네마) |
| 태안문화원 |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2 | 90.06.05. | 3,507 | 정낙추 | 정지수 | 김유미 안은선 조지현 안상은 | T. 674-2192 F. 675-6968 |

문화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친다.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30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